

# Contents



이제인 인권지원 시포터즈 선언식 '침묵을 깨는 아름다운 세명'

## issue

기획특집	여성연예인에 대한 이야기들	
	- 침묵의 카르텔을 깨기 위해, 긴 호흡으로 다시 시작합니다.	2
	- 장자연 문건, 그리고 여자 연예인/스타 되기의 성정치학	6
	- 여성연예인 인권침해, 이제는 눈 감을 수 없다카라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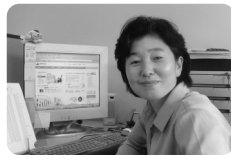
## info. in common

쟁점과 입장	성폭력 피해생존자를 위한 심리치료	12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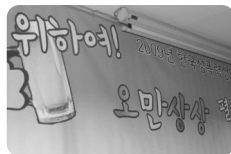
## survivor's voices

상담실에서	국내 첫 '성폭력 사건' 국민참여재판: 13시간의 공판과정	14
생존자 말하기	水의 이야기 - 가라, 네! 아빠란 사람아	16
열린터 생각	열린터 다이어리	22
	테디보이 를 읽고	22



## edutainment

몸이야기	몸을 만나다 (연재 1/3)	24
만나고 싶었습니다	'한국여성태권도연맹' 전무이사 임신자	27
소모임 생각	순간순간 찾아오는 불완전한 치유의 즐거움	30
	- 패트리샤 맥코믹, 『컷』	
회원칼럼	'세상 속' 사람들과 만나다	32
사무국 이야기	사람만이 희망이다	33



## report & membership

원대상담소	원대상담소	34
들고나기	들고(미초, 송미현) / 나기(은주, 지선, 키라)	36
사업 p/review	일일호프 / 달빛시위	38
회원소식	소모임 소식 / 후원 소식	39
	아낌없이 주는 나무	40

# 침묵의 카르텔을 깨기 위해, 긴 호흡으로 다시 시작합니다.

◎ 성문화운동팀 키라

한 명의 여자배우가 목숨을 끊었고, 고인이 작성한 죽음의 이유는 문서로 남겨졌다. 대한민국에서 이름만 대면 아는 한 언론사와 유명 방송계 인사 등이 포함되었다고 알려진 '성접대'의 리스트가 그 죽음의 원인이 아니었나 하는 추측은 많은 사람들을 분노케 했고, 신문에는 오랫동안 고인의 이름이 거론되는 기사들이 주요 지면을 채웠다. 많은 이들은 '이번이라고 해서 제대로 밝혀지겠느냐'라는 우려와 더불어, 고인이 육필로 남긴 문서가 이번 수사를 '성역 없이' 할 수 있는 증거 자료가 되기를 바라는 실낱같은 기대를 가졌다. 여성 연예인 성상납 문제는 늘 카더라 통신으로만 존재해왔고, 관련자가 대한민국의 막강 권력자이기 때문에 늘 의혹만을 남긴 채 수사는 흐지부지 종결되어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찰은 이러한 국민들의 신뢰를 저버리고 사건의 전모도 제대로 밝히지 못한 채 수사를 잠정 중단하였으며, 리스트에 있다고 확실시되었던 언론인은 혐의가 없다는 경찰의 발표로 자유의 몸이 되었다. 남은 것은 고인의 죽음과, 그 해당 언론이 막무가내로 명예훼손 고소한 몇몇 정치인과 단체 활동가들의 참담함이다. 이 과정에서 거대한 무기력감이 습관처럼 우리에게 익숙해지고 있다. 그 무기력감은 '우리는 최선을 다해 싸웠지만, 세상은 변하지 않는다'는 좌절감의 다른 모습이다. 많은 네티즌들이 '성역 없는 수사'를 요구하였고, 시민사회단체는 경찰서와 청와대 앞에서 기

사회견을 열어 우리의 의견을 세상에 알렸으며, 경찰에 의견서를 발송하고, 명예훼손 고소를 불사하고 조선일보 앞에서 마이크를 잡았지만 결국 우리의 목소리가 '공허한 메아리'로만 돌아오고 있다는 참담함이기도 하다. 이 무기력감이 극단으로 치달는다면, 결국 우리는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또 발생하더라도 침묵을 지키게 될지도 모른다. 그 침묵은 '열심히 해 봤지만 변하는 것은 없잖아. 세상이 그런거지.'라는 거대한 침묵의 카르텔을 형성할 것이다. 그 무기력감이야말로 우리가 반대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무기력감을 동반한 이 사회의 망각에 저항하는 행동이 지금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기력함을 만드는 이데올로기와 구체적인 실체를 확인하고, 그것을 공격할 수 있는 우리의 힘과 희망의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첫째.** 자원이 없는 신인 여배우들이 성공을 위해 성접대를 하고 부당한 계약조건을 감수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관행'이 아니라 우리나라 연예 산업의 성차별적 관행이고, 그 관행은 분명히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한다.

심심치 않게 떠도는 여자 연예인에 대한 루머 중 상당수는 성공을 위해 스폰서와 성적 관계가 포함된 계약을 맺는다는 것이다. 그러한 루머는 '성접대가 100% 자발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성공하고 싶냐'라는 여자 연예인에 대한 비난으로 이



어진다. 남자 배우에 비해 여자 배우들 연예인들이 긴 호흡과 비전을 갖는 '진정한 연기자'로 인정받으며 성장하기 쉽지 않은 연예·방송계에서, 자원이 없는 신인 여자배우에게 들어오는 스폰서 제안은 거절하기 쉽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제안을 받아들여 소위 '톱스타' 반열에 오른다고 하여도 그 경험이 또 다시 그 여자 배우의 숨통을 언제든 조일 수 있는 현실에서, 여자 배우들은 자신의 실력을 키우는 데 매진하기보다, 자신의 (남성) 자원에 대한 관리와 대중적으로 어필할 자기 이미지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계속해야만 한다. 많은 이들이 이것을 어쩔 수 없는 '권력자의 여색'으로 낭만화 한다. 하지만 이것이 연예산업에서 성공하기 위해 '여자배우'가 어쩔 수 없이 거쳐야 하는 관문으로 당연시될 때, 이는 하나의 거대한 구조가 되어 개인들을 압박한다. 이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여성 연예인들이 경험하는 부당한 상황에 대한 사회적 환기가 필요하다. 자신이 받아들여야 했던 불합리한 계약 조건, 암묵적인 성접대 강요, 그로 인한 인권침해의 내용이 드러나 사회적으로 소통 가능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더 이상 카더라 통신으로 남아있으면 안 된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고인의 죽음 이후,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 용역 사업을 발주한 것은 반가운 일이다. 익명이 보장된다면, 연구 사업을 통해 여성 연예인들이 처한 인권 실태에 대한 대중적 인식과 그를 통한 개선의 필요성을 공유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으로, 지난 5월 22일 '여성 연예인 SOS센터'를 개설하였다. 한국성폭력상담소와 민변 여성위원회, 한국여성의전화가 함께 운영을 맡은 이 센터에서는 여성 연예인들이 처한 부당한 계약 조건과 '성접대'와 같은 성폭력, 성매매에 대해 상담하고 사건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앞으로 이 센터의 구체적 운영방향에 대해서는 더 협의를 해 나갈 예정이지만, '여성 연예인의 성 루머'로만 떠돌던 이야기들이, '인권'의 문제이고 차별과 폭력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임을 사회적으로 환기하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둘째.** 여성 연예인을 자살로 내몬 것은 부당한 계약 조건을 강요한 기획사나, 성접대를 받은 권력자 뿐 아니라, 그녀의 입을 막은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이기도 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제까지 성과 관련한 파문으로 가십에 오르내렸던 여자 연예인들을 떠올려보자. 각종 비디오 사건에 등장한 여자 연예인들은 모두 비디오를 빌미로 부당한 요구를 받아야했고, 보복성 비디오 유출의 피해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여자 연예인'으로 회자된다. 심지어 '물의 연예인 컴백 논란'이라는 기사(스포츠 서울 2009. 1. 29)에서는 성매매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는 남자 연예인과



성연예인 인권지원 서포터즈 선언식 '침묵을 깨는 아름다운 사람들'

2009년 5월 22일(금) 11시 30분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앞 주최 : 여성연예인 인권지원 서포터즈

한 명의 여자배우가 목숨을 끊었고,  
고인이 작성한 죽음의 이유는  
문서로 남겨졌다.  
대한민국에서 이름만 대면 아는  
한 언론사와 유명 방송계 인사 등이  
포함되었다고 알려진 '성접대'의 리스트가  
그 죽음의 원인이 아니었냐는 추측은  
많은 사람들을 분노케 했고,  
신문에는 오랫동안 고인의 이름이 거론되는  
기사들이 주요 지면을 채웠다.

비디오 사건의 피해자 여성 연예인을 동일선상에 놓고 '몰의 연예인'으로 싸잡아서 다루고 있다. 이런 '우리들의 인식 수준' 속에서 고 장자연씨가 살아서 자신의 경험을 증언했다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리스트를 작성한 그녀에게 '그게 뭐 자랑이라고 내놓고 공개하냐', '몸 팔아서 성공하고 싶었냐'라는 비난 댓글이 올라오지는 않았을까? 그녀의 연예계 활동에서 오랫동안 낙인이 지워지지 않는 상황에서 이러한 커밍아웃은 그녀에게 연예계에서의 생명이 끝이라는 좌절을 주었을지도 모른다. 여자 연예인에게는 때로 극단적인 성적 매력이 요구되지만, 동시에 '겉레로 찍히면 이 바닥 생명 끝난다'라는 협박이 존재한다. 그런 의미에서 연예계는 다른 어떤 곳보다 여성에 대한 이중적 기준이 존재하는 성차별적 공간이다. 여성들을 성적으로 등급화하는 가부장제의 통제 기제가 가장 극단적으로 존재하는 곳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연예계의 관행과 여자 연예인에 대한 차별적 시선을 온 몸으로 체험해온 사람이 선택하는 '자살'은, 사실 이러한 차별과 폭력에 무감각해진 우리 모두의 책임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의 재발 방지를 근본적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고 장자연 씨와 같은 여자 연예인이 자신의 경험을 사회적으로 드러내었을 때, 그녀와 함께 여자 연예인에 대한 악의적인 반응에 맞서

함께 싸워줄 사람들을 모아야 한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고인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며 정의의 편에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들은 평소에도 여자 배우들의 섹스 스캔들 및 성형 유무에 대한 가십 인터넷 기사를 클릭해보고 그러한 차별들을 방관하는 이들이기도 하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변화를 꿈꾸기 위해, 지난 5월 22일 많은 시민사회단체, 정당, 개인들이 모여 '여성연예인 인권지원 서포터즈'를 결성하였다. 이 활동을 시작하는 선언식에서는 '내가 좋아하는 여성 연예인들을 내가 지키겠다'는 다짐, 그를 위해 여성 연예인에게 성적 등급화라는 낙인을 찍는 성차별 문화를 반대하고, 여성 연예인들이 실력으로 평가되고 진정한 연기자로 성장할 수 있는 풍토 조성에 함께하겠다는 약속을 하였다. 또한 여성 연예인에 대한 인권침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 기관에 대한 감시와 규제를 촉구하고, 연예 산업 종사자들에게 여성 연예인에 대한 성차별적 관행을 거부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 서포터즈 선언은 앞으로 '여성연예인 인권'의 관점에서 연예 산업의 부당한 관행을 개선하고 법제도를 개선하며, 여성 인권의 시각으로 여성 연예인을 지지·지원하겠다는 시청자들을 모으는 장기적 활동의 시작을 알리는 자리였다.

셋째, 고 장자연씨의 죽음을 거대한 침묵의 카르텔 속에서 잊혀지는 사건으로 만들지 않겠다는 다짐과, 그것을 널리 알려나갈 다양한 방식의 '기억' 행위들을 자발적으로 만들어나가고 사회적으로 소통할 것에 대한 다짐이다.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는 그 하나의 시도로 <액션! 할 말 많은 UCC 행동단>을 시작했다. 고 장자연 씨의 죽음에 대한 많은 이들이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UCC를 통해 자신의 기억을 소통하고 세상과 나누는 것이 이 UCC 행동단의 구성 목적이다. UCC 행동단의 블로그([http://blog.jinbo.net/ucc\\_action](http://blog.jinbo.net/ucc_action))에는 현재까지 총 9편의 UCC가 올라와 있으며, 다양한 단체와 개인들, 소모임에서 자발적으로 제작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첫 번째로 선보인 UCC 행동단의 영상은 68일 동안 경찰의 미온한 수사 작태와 그에 대한 대응 내용을 일지 형식으로 제작하여 많은 공감과 지지를 받았다. 두 번째로는 '전기하와 방가방 가시스터즈'라는 이름으로 모인 3인이 편곡, 촬영, 제작한 영상으로서, 최근 주목 받았던 '장기하와 얼굴들' 밴드의 인기곡 '짜구려 커피'를 개사하였다. 이름하여 '짜구려 신문!' 이 영상의 주된 내용은, '짜구려 신문을 읽는다~1면부터 적잖이 속이 쓰려온다~'라는 가사로 시작되며, 직장 경찰 수사에 대한 분노와 명예 훼손 고소를 남발한 언론사에 대한 비웃음을 날리는 내용이다. 여지블모(여성주의지향블로거모임)에서 제작한 두 개의 영상은 다음과 같다. '내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마'라는 제목의 영상은 고인이 귀신이 되어 자신의 죽음 이후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인터넷 기사에서 확인하고 분노하는 내용이다. 결국 책임자를 처벌하지 못하고 수사를 종결한 경찰에 대해 '미네르바도 잡았는데 왜 처벌하지 않나?!'라며 흰 소복에 검은 긴 머리를 풀어헤친다. 영상의 말미는 화면에 피가 흩뿌려져서 공포감과 섬뜩함을 더한다. 여지블모의 또 다른 영상은 '대한민국 바나나 리스트'라는 제목으로, 여성 연예인의 성접대 리스트를 공개하는 한 연예 오락 프

로그램을 패러디한 작품이다. 고 장자연 씨의 죽음을 둘러싸고 리스트에 있다는 것이 공공연하게 알려진 신문사 이름(\*선 일보)에서 영감을 얻어 영상의 제목이 '바나나' 리스트가 되었다는 후문이 전해진다. 여기서는 두 진행자가 리스트를 공개하려고 할 때 마다 가면을 쓴 방해꾼들이 등장해서 사회자의 입을 막고 공개를 방해하는 장면들이 나온다.

이 UCC 행동단의 장점은, 이 사건을 둘러싸고 다양한 사람들이 하고 싶었던 수 많은 말들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수사권이 경찰에게 있고, 이 사건의 해결을 사법적으로만 사고했을 때,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경찰의 성역없는 수사'를 외치는 것 뿐이었다. 하지만 그 수사를 촉구하고, 그 수사를 촉구하는 더 광범위한 대중적 지지와 힘을 결집하기 위해서는, '경찰/검찰 수사'라는 주장의 폭을 넘어 귀신을 등장시키고, 유행가 가사를 개사하여 노래하면서 우리 안에 이미 갖고 있는 힘과 아이디어를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 그 과정에서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새로운 시도가 즐겁고 의미 있는 역할을 하리라 기대한다.

고인의 죽음을 계기로 우리들에게 강요되는 침묵의 카르텔을 깨기 위해서는, 이번 사건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와 책임자 처벌에 대한 요구를 포함하여, 이 문제를 여성인권 이슈로 제기하고 그 장기적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한 숨고르기가 필요하다. ☹

“경찰은 수사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우리들은 지금, 바로 시작을 선언한다.”

# 장자연 문건, 그리고 여자 연예인 〈스타 되기의 성정치학〉

◎ 영화평론가 / 동국대 교수 유지나



2000년대 들어, 여자 연예인들이 연이어 자살했다. 이은주, 유니, 정다빈, 최진실, 리스트까지 동반한 장자연, 그녀에 관한 수사가 미완으로 종결된 다음 날 우승연이 자살했다. 신인부터 스타에 이르기까지, 가수에서 탤런트, 배우에 이르기까지 이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죽음의 사연은 각자 다르겠지만, 이 사회는 우울증 때문이라고 진단한다. 우울증의 원인은 실연, 악플, 스트레스 등이라는 설명도 덧붙여진다.

주민등록번호를 적고 지장까지 찍은 장자연 문건에 이르러서야 성상납의 고통이 여자연예인(들)의 우울증 원인으로 강력하다는 점이 드러났다. 장자연의 사례는 악덕 기획사에 잘못 걸려든 운 나쁜 경우이며, 실제 연예계 풍토는 많이 개선되어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라는 해명성 변명도 나왔다. 물론 한 개인의 문건으로 비롯된 것이기에 특수한 사례처럼 보이지만, 익명을 달고 오랫동안 흘러나온 연예업 종사자들의 목격담에 이르면 이런 정황은 구조적인 문제를 드러낸다.

그렇다면 이 모든 현상을 목격해 온 우리에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불가능한 **의문점**들을 짚어보자.

**1** 박정희 시해 사건 당시, 안가의 그 자리에 여가수와 모델지망생인 어린 여자는 무슨 일을 하고 있었을까? 분명 술접대를 하고 있었다. 과거에는 기생이 하던 일, 지금은 룸살롱이나 유흥업소에서 하는 일이다. 당대 최고 권력이 부르니 영광으로 거기 갔는지, 아니면 명령불복종으로 피해가 두려워 그 자리에 갔는지 몰라도, 일단 그 자리에서 그녀들은 충격적 상황을 목격하고 누구에게 이야기도 못한 채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 그런 술자리는 딱 한 번이 아니라 관행이다. 이런 수치스러운 관행에 대해서는 〈증발〉이라는 신상옥의 조악한 영화가 그런 정황을 슬쩍 보여준다.

**2** 배우에겐 연기력이 관건인데, 그 기본 요건인 발음도 제대로 못하는 대사 구현 장애를 가진 여배우가 주연을 한다. 영화는 실패. 그런데 그 여배우가 다시 TV나 영화에서 주연을 따낸다. 그녀를 주연으로 캐스팅한 감독에게 왜 그런 착오를 거듭 범하느냐고 물어본다. ‘다 알면서 왜 그런 걸 묻느냐’는 표정을 지으며, 그는 답했다. “그녀를 주연으로 캐스팅해야 투자가 가능하니, 어쩔 수 없다”라는 것이다.

[편집자주] 이번 기획 특집은 지난 3월 초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장자연 씨의 죽음을 둘러싼 이야기들의 모음입니다. 고인의 죽을 이후, 고인이 직접 작성한 소위 '성 상납한 대한민국 거물급'의 리스트가 언론에 공개되면서 경찰은 전격 수사에 착수하였지만 지금까지도 경찰은 제대로 된 수사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키라 활동가는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고인의 죽음을 계기로 시작한 활동 내용과 그 내용의 의미를 짚으며, 이 이슈를 여성 연예인 인권 문제로 대응할 수 있는 여성 운동의 전략에 대한 고인의 흔적을 자세히 소개합니다. 미디어 액티비즘의 고민을 접목한 UCC 행동단 활동의 활동 내용이 흥미롭습니다.

고인의 죽음을 '제 2의 나혜석'이라고 칭했던 유지나 교수는 고인의 죽음을 계기로 가부장제의 성정치학의 기제가 드러나야 함을 주장합니다. 연예계의 관행으로 여겨져 온 '여성 연예인, 성상납'의 문제는 이 사회가 여성의 성력(性力)을 문제 삼아 '갈레'로 낙인찍어 처벌하는 사회적 이상, 변화의 실마리를 찾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더불어,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주체는 다른 누구도 아닌, 여성 연예인 당사자들이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방송영화공연예술노동조합 문제갑 정책위원장과 인터뷰는 노조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이슈, 여성연예인 인권 침해의 원인과 해결 방안, 현재 추진 중인 제도 개선의 취지와 현재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터뷰를 통해 알게 된 현장의 목소리와 고민은 여성 연예인 인권에 대한 여성 운동의 장기적 플랜을 세우는 데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기획특집 중, 외부 필진의 글은 상담소의 편집 의도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 STAR

**3** 적나라하게 섹시한 자태로 춤추고 노래하는 여가수, 섹시함 자체를 내세워 기획 스타가 된 댄스 여가수 그룹들……. 이들 중 어떤 이는 표절곡으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심지어 노래도 제대로 못하는 가수로서의 기본 실력을 못 갖춘 경우도 상당수이다. 오죽하면 '인니들 노래 좀 하자'라는 음악평론이 다 나올까. 그래도 그녀들은 스타이다. 기본 실력으로 크는 게 아니라 섹시함이 우선이니까. 소주 광고도 반라의 그녀들 모습이 휩쓴다. 그런데도 그들은 무대 밖 모습을 보여주는 방송에서 섹시함과 정반대로 조신하고 소탈해서 (알고 보면) 현모양처형으로 자신을 이미지화한다. 표리부동의 극치이다. 배신감이 들 정도로.

**4** 수년 전, 프랑스 신인 여배우가 한국영화에 출연하기 위해 잠시 한국에 머문 적이 있었다. 투자가 잘 안 돼 지지부진했던 이 영화의 감독이 스태프의 술자리에서 여배우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려하자, 그녀는 모두 보는 데서 그를 밀쳤다. “한국에서 여배우 하려면 이런 걸 다 감당해야 한다”라며 그는 자신의 태도를 정당화했다. 충격을 받은 그녀는 다음날 프랑스로 돌아갔다. 입양인인 그녀에게 한국은 자신을 버린 나라지만 그래도 노스텔지어를 갖고 돌아와 당한 이 사건은 어떤 의미일까? 어머니의 나라는 입양국인 프랑스와 달리 권력이 있는 남자가 여자를 아무데서나 덮쳐도 되는 나라일까? 그래서 어머니는 자기 아이 양육을 감당하지 못했던 것은 아닐까?

**5** 성형공화국이 되버린 한국, 여자연예인들은 성형을 밥 먹듯이 한다. 성형외과 의사는 방송에 나와 성형이 자신감을 갖게 해주는 좋은 행위라며 성형을 통한 자아 개선 효과를 홍보한다. 빠드렁니가 그 이탈적 자태로 매력적이었던 여배우도 성형을 해 여타 성형미인들과 비슷해지고, 성형 이중인간 여가수를 찬양하는 〈미녀는 괴로워〉 같은 영화가 흥행 1위를 기록한다. 아마도 그녀들은 더욱 사랑받으려고, 더 자긍심을 키우려고 성형을 했지만, 그로 인해 악플에 시달리고, 우울증에 걸리고 목을 매달 정도의 절망 속에 빠지는 것일까? 성형외과 의사의 말대로 자긍심 향상은 커녕 부조리한 악순환의 심화 아닌가요?

이런 의심들, 이런 어이없는 작태들, 여자의 몸이 전쟁터가 되는 이런 상황은 그녀들의 마음을 만신창이로 만들었으리라. 그런 참담함의 악순환을 싸잡아 이 사회의 병리학은 '우울증'이라는 단순한 진단으로 처리한다. '우울해서 성형하고, 약 먹고, 술 마시고, 급기야 괴로워 자살했다'는 것이다.

이런 현상을 조금만 깊이 추적해보면, 소통부재의 문제가 떠오른다. 왜 그녀들에게는 고통을 소통할 친지 한 사람조차 제대로 없는 것일까? 어떤 스타는 연예계 사단을 거느렸는데, 왜 그녀의 친권회복운동 공식석상에 그 누구도 얼굴 하나 내비치지 못하는 것일까? 도대체 무엇이 두려운 것일까? 대중의 사랑을 얻으려는 노심초사, 대중의 사랑을 잃을까, 하는 불안의 저변에는 무엇이 존재하는 것일까?

여자연예인을 둘러싼 이 모든 우울과 낙심과 두려움의 근저에는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통째로 정성치학의 구조적인 문제가 팽배해 있다. 이어지는 자살사태는 그런 관행의 수위가 목까지 치밀어 올라왔다는 점을 증명해준다.

우리 모두는 삶의 에너지인 에로스(Eros) 에너지로 살아간다. 이성/동성과의 관계에서 따뜻하게 발휘되는 몸과 마음이 깊게 소통하는 것이 삶의 핵심이다. 이것이 무너지면 에로스 에너지는 곧 타나토스(Tanatos)라는 죽음의 에너지, 자기 파괴의 에너지로 변환된다. 삶 속에는 늘 죽음의 욕망이 함께 존재하기에 삶과 죽음은 동전의 양면이다.

에로스 에너지가 제대로 발휘하려면 상대를 자신과 같은 인격으로 대하며 상호평등하게 깊게 소통하는 맛을 익히고 경험해야 한다. 그러나 봉건적 성도덕률은 여남간의 에로스 소통보다, 남성의 성욕 충족을 중심으로 '정숙한 여자'와 '결레 여자'로 이분화된 여성형을 양산해낸다. 섹슈얼리티에 대한 이중적 기준과 위선이 이 사회에 남성 양성 모두를 타락시켜 피폐하게 만든다.

연애, 로맨스는 힘들고 귀찮아서 못하겠다는 이들도 있으니 너무 뺏겨진 것이 아닌가? 그러나 성매매특별법에도 불구하고 온갖 방식의 매매춘으로 여남성이 만난다. 자녀 학원비를 위해, 유

흥비를 위해 몸 파는 여자들의 파행담이 매스컴에 등장한다. 정경부인을 집에 모셔두고 온갖 유흥장에서 여자를 사는 남자들을 도덕적으로 질타하는 경우는 없다. 남자는 원래 그런 동물이란단다.

여전히 간통죄를 유지하며 평생 단혼제를 중시하는 한국 사회에서 섹슈얼리티를 둘러싼 이런 이중적 위선은 이제 벗겨져야 한다. 성폭행, 성추행, 급기야 성상납 사건이 목숨을 걸고 밝혀져도, 약한 여자가 강한 남자에게 당하는 관행으로 치부하는 이런 반인권적 발상과 실패는 이제 고발되고 폭로되고, 수정되어야 한다.

여자 연예인이 권력남의 성상납 대상이 된다는 사실은 현재만의, 일부만의 일이 아니다. 권력이 없는 남자가 각자 자신의 경제수준에 맞는 성매매를 하고, 성추행, 성폭행을 하는 것도 동형 구조이다. 섹슈얼리티 이해와 발현을 둘러싼 본질이 뺏겨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장자연 문건은 철저하게 재조사되어 시비가 가려져야만 한다. 더불어 연예계의 제도적 관행을 여성인권을 중심으로 제도개선이 시행되어야 한다. 여자 연예인 자체도 실력으로 승부하는 자긍심 회복 운동을 벌여야 한다.(성형으로 몸까지 고쳐가며 권력남에게 술 따라주는 접대부가 아닌 예인정신으로 자신을 키워가는 자긍심으로부터 자신을 다지는 풍토를 스스로 만들어 가야 한다.) 여자 연예인의 섹슈얼리티를 즐기면서도 그녀들이 조신하기를 기대하는 팬덤의 이중적 태도도 수정되어야 한다. 섹슈얼리티 태도에서 마돈나처럼, 조디 포스터처럼, 차라리(주관적 취향으로는 혐오스러워도) 패리스 힐튼 같은 다양하고 솔직한 여자 연예인상이 제각각 개성 있게 드러나는 게 훨씬 건강하다. 예술이라는 것은 독창성을 실존근거로 한다. 여자예인들이 다양한 섹슈얼리티 라이프 스타일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이 사회의 여성 역할 모델 스펙트럼을 넓히는 것이고, 보다 긍정적이고 상식에 맞는 일이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함께 '결레 여자론'을 깨우어야 하며, 옥소리의 간통사건을 인권문제로 도와줄 필요가 있다. 이제 '침묵을 깨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자. ☞

# “여성연예인 인권침해, 이제는 눈 감을 수 없다”

- 한국방송영화공연예술노동조합 문제갑 정책위원장 인터뷰

◎ 나눔터 편집팀

연일 연예인에 대한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고, 거리에는 그들의 사생활과 관련된 소문이 넘친다. 소소한 연애사부터 기획사와의 분쟁까지, 가만히 있어도 손쉽게 정보를 듣게 되는 시대이다. 여성 연예인들의 잇따른 자살 소식이 전해지고 기획사와 연예인 간의 전속계약 파기로 인한 법적 분쟁도 간간히 보도된다. 많은 경우 자살은 우울증으로 판명되고 계약 파기는 대부분 기획사에 대한 배신한 연예인의 배신행위로 다뤄진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 알고 있는 것인가?

故장자연씨의 죽음을 계기로 연예기획사의 성상납 관행과 불평등한 계약, 인권침해 사실 등이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그리고 최근, 지금까지는 어쩔 수 없는 관행으로 치부되었던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여성연예인에 대한 공공연한 인권침해를 고발하고, 향후 재발되지 않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 중인 한국방송영화공연예술노동조합(이하 한예조) 문제갑 정책위원장을 만나 현장에서 바라보는 연예산업의 구조적 문제와 해결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 interview

interviewee\_ 문제갑 (한국방송영화공연예술노동조합 정책위원장)

interviewer\_ 키라 (활동가)

**Q** 故장자연씨 사건을 비롯, 연예계에서 일어나는 비극적인 일들을 보았을 때, 현재 상황이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A** 일반사회의 공동체 내에서 해결을 하거나 법으로 호소할 수 있는 문제들이 대중문화예술인들에게는 어려운 경우가 많다. 노출 자체가 배우 생명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세상의 비난이나 판단 때문에 문제 제기하기가 어렵고, 그것을 극복하고 재기한다는 것은 대단한 것이다. 노출도 안 되고, 사전에 예방할 방법도 없고, 관행적으로 저질러온 수많은 인권침해나 부당한 요구들이 만연해 있다. 그러다보니 피해가 자꾸 양산되고, 2005년 초 이은주 씨 자살 이후로는 자살 빈도

수가 자꾸 늘어난다.

대중문화예술계가 임계지점을 좀 넘은 것은 아닌가 싶다. 실제로 무언가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이 벌어지는 현상의 추세를 누그러뜨리거나 막기에는 역부족인 선까지 왔다.

**Q** 일련의 자살사건이나 성접대 등의 루머와 연루된 사람들은 대개 여성연예인이며 여성연예인과 남성연예인이 겪는 경험과 고통에 차이가 있지 않냐는 궁금증도 많은 것 같다. 실제 사례들을 보면 어떤가?

**A** 일반적으로 여성연예인들이 성접대 등의 피해를 당하거나 노출될 것이라는 편견이 강하지만, 남성연예인 또한 그러한 유혹이나 부당한 요구에서 자유롭지 않다. 또한 실제적인 피해 발생은 대중의 인식만큼 심각하게 많지는 않으나 '누구나 그럴 개연성이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연예인들이 받게 되는 요구가 부당한 것은 당사자인 자신이 그것을 거절할 수 없기 때문이다. 판단의 주체성이 주어지지 않는 것은 기획사 측에서 우월적인 지위로 당사자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강제하는 것이다.

스타덤에 오르기 직전의 배우들, 오랜 무명 세월을 겪고 이제 도약단계인 배우들은 스스로 어떻게 해야겠다는 것 보다는 어떻게 컨트롤 되고 있다는 것을 훨씬 더 많이 느낀다. 자기 판단으로 비전을 찾아가는 것 보다 기획사, 제작사, 매니지먼트사들이 제안하는 경우가 많다. 여기서 눈을 감으면 스타의 반열에 올라간다는 기대, 제작사 측에서는 조금만 더 하면 우리도 고생 끝이라는 생각 때문에 무리수를 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 사례가 장자연 씨다. 이 사건의 경우 한예조 내부적으로 받은 충격이 크다. 종전의 자살이라고 하면 대중의 시선에서 멀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인한 것이거나, 무명 배우의 경우는 노력을 해도 안 된다는 절망감으로 인한 것이 컸다. 이는 몇 사례를 통해 확인한 바 있는 유형들이었다.

그러나 장자연 씨의 경우, 조금만 더 노력하면 스타덤에 오를 수 있는 배우이고, 이 정도의 배우라면 자살할 이유가 없는데 어떻게 자살을 할 수 있냐? 당혹감

을 느꼈다. 그러다가 인권침해에 관한 사실이 드러났고 그것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이전에는 각 방송국의 공채제도 등을 통해 연예인 사이의 결속력이 굉장히 강했다. 그러나 외주제작의 활성화 등으로 인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활동을 하게 되고, 결국 경쟁과 개별화가 형성되어 대중문화예술계가 가지는 이중성과 양면성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배우들이 어디에도 상담을 하지 못하고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다. 앞으로도 불행한 사건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조직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정말 힘들다.

**Q** 그렇다면 여성연예인에 대한 인권침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는가?

**A** 여성연예인들의 경우 계약 당시부터 인권침해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계약을 하게 되면 제작사, 소속사가 프로모션을 하므로 요구를 피할 수 없다. 자신의 판단과 상관없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고, 그러한 관행에 편승해서 출세하려는 배우들도 있다. 서로가 관행을 이용하게 되는 상황을 조장하면서 부당한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려는 기획사들이 있다는 것이다.

한예조에서 주목하는 것은 그러한 현상이 얼마나 벌어지느냐가 아니라 그러한 것이 불가피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국내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구조이다.

일본의 경우, 연예인들은 월급제를 통해 연예인이라는 직업을 가진 생활인이 된다. 미국은 매니지먼트사가 배우를 발굴하고 육성해서 스타로 만들고, 에이전시는 별도의 계약을 통해 배우를 특정 광고나 방송에 출연시키고, 제작사가 그 배우를 채용한다. 이것이 정확하게 분리된다. 제작사가 소속사를 겸할 수 없고, 소속사가 있어도 소속 배우를 쓸 수 없다. 공정한 편성이 아니기 때문이다. 자신의 자본으로 작품을 만들면서 소속사 배우를 쓰는 편이 더 이익이 크다. 이러한 고차원의 착취를 법적으로 못하게 해놓았다. 그러나 한국은 겹쳐져 있는 구조다. 메이저 프로덕션의 경우 소속 배우들을 매니지먼트하고 제작까지 한다. 그러다보니 제작사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게 되고, 소속사의 권력 앞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낼 만한 배우들이 없다.

또한 터무니 없는 조항들이 들어가는 계약 역시 문

제다. 자신을 키워줄 기획사이다 보니 조항을 따지고 들면 계약 자체를 할 수 없다. 게다가 소속 연예인에 대한 투자비를 채무로 보고 그들의 활동 수익에서 투자비를 전액 회수하는 폭리가 있어도 제작사에서 산정한 금액에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다.

**Q**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들었다.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다.

**A** 앞서 말한 관례적인 문제들을 바꾸기 위해 문화관광부와 함께 '매니지먼트 사업을 하는 측이 제작 업무를 겸하지 못한다'는 매니지먼트 사업법을 제정하고자 추진 중이다. 매니지먼트 사업에는 인적·물적 조건을 갖춰야 한다는 등록요건이 있다. 아주 강하게 규제하지는 못하겠지만 규정을 가지고 있다는 자체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부당한 계약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제제기를 하여 정상적인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표준약관을 제정하게 되었다. 특히 사회적 약자인 신인 무명 여성연예인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이러한 제도들을 통해 주종의 관계, 가분의 관계,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해 여성연예인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

**Q** 그러나 표준약관의 경우, 실제 모든 부당한 일들은 계약서 이면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는데?

**A** 표준약관마저도 없는 상태에서는 부당한 요구들이 버젓이 문서화되어 나타난다. 과거에는 불공정한 계약을 공공연하고 합법적인 것처럼 위장했다면, 이제는 그러한 것이 불합리하고, 감추어야 하는 일이 된다는 것이고, 다시 이야기하자면 분쟁이 생겼을 때 대중문화예술인들에게 유리한 조건이 형성된다는 뜻이다. 그런 의미에서라도 표준약관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 또한 이면으로 계약을 하는 기획사를 서열화시켜, 부당하고 잘못된 회사들을 도태시켜내는 데도 큰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런 정도의 의미로 이해해주면 될 것 같다. 전부 규제해서 100% 완벽하게 통제가 가능할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는다.

**Q** 연예인 법률지원센터를 설치한다고 들었는데,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A** 법률지원센터는 대중문화예술인들이 일반사회인들에 비해 사회성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제안한 것이었다. 어린 나이에 연예계에 입문한 경우, 계약 시 계약 내용의 행간에 숨어있는 교묘한 장치들을 스스로가 파악하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할 수 있다. 이렇다보니 전체 연예인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구제, 지원체계의 필요에 따라 문광부에서 대중문화예술인 지원센터를 만들기로 하였다. 변호사를 통하여 출연계약부터 차용증서 등 사회생활 시 필요한 것들을 법률적으로 지원 받을 것이다. 연말 정도 되면 운영 방안도 나오게 되니 내년부터는 정부 예산을 지원 받으며 센터 운영을 하게 될 것이라 기대한다. 여성연예인들에 대한 부당한 요구나 인권침해 관련 부분도 센터를 통해 상담이 가능할 것이다.

**Q** '여성연예인 인권지원 서포터즈' 선언식 때 '여성연예인 SOS 센터'를 개설하였다. 향후 여성단체, 민변 등과 어떻게 협력하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A** 일부 단체에서 도와주는 취지는 정말 고맙고 감사하다. 그렇지만 이쪽의 참여 없이는 불가능하지 않은가. 여성연예인들은 프라이버시 노출에 대한 우려로 일반인들처럼 고통을 호소하거나 도움을 청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잘 활용하려면 노조와의 협력이 필요할 것이다.

한예조에서 하고 싶은 조언은 이렇다. 악성댓글을 비롯 인터넷의 글들을 보면서 연예인들이 느끼는 심적 고통이 상당하다. 정말 힘들어하고 있으니 네티즌으로 하여금 좋은 댓글을 달아 지지해주거나 악성댓글에 대해 문제제기하는 등의 활동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했으면 한다. 그런 것들이 너무 고맙다. 그것은 아주 작지만 큰 일이다.

따라서 SOS 센터에서도 긴급하다고 하는 것에만 너무 집중하지 말고 여성인권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모으는 것에도 노력해주었으면 한다.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그 단체를 지지·후원하고, 함께 운동하고 협력하는 방안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



## 성폭력 피해생존자를 위한 심리치료

◎ 심리학 박사/미국 뉴욕주 심리학자 조용범

### 성폭력 피해생존자와의 만남, 미국 그리고 한국

성폭력 피해생존자들과의 만남은 뉴욕에 있는 롱아일랜드 주이시 메디컬센터에서 수련을 받기 시작했던 90년대 말부터였다. 당시 경계선 성격장애 진단을 받은 여성들은 자살행동이나 협박과 같은 증상 때문에 전문가 사회에서 치료를 꺼려하였는데, 이들 중 거의 대부분이 아동청소년기 성폭행 피해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나에게 큰 충격이었다. 자신의 신체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를 폭력적으로 훼손당한 이들은 모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었고, 그 후유증은 다양한 정서적·성격적 장애로 이어져 고통의 삶을 살고 있었다. 이후 한국에서 피해여성들을 만나면서 나는 이들에 대한 선진국 수준의 지원과 심리치료에 앞서 기초적인 법률이나 피해자에 대한 보호적인 사회적 인식조차 낮은 수준이라는 것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아동기 때 친부나 의부에 의한 성폭력 사실이 증명되어도 이들의 어머니는 어쩔 수 없다며 같이 거주하고 있기도 했고, 분명히 친족의 성폭력에 의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도 가해자를 조사하거나 처벌하지 않았다. 오히려 피해생존자들은 참을 수 없는 모욕과 굴종, 심지어는 2차, 3차의 성폭력 희생자로 살고 있었다.

### 피해자 따돌리기와 낙인찍기

또한 우리 사회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기본적인 동정과 지원보다는 왕따 문화적 따돌림을 통해 피해자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며 오히려 낙인을 찍듯 이들을 정신병리적인 시각만으로 판단해 버리기도 했다. 아마도 성폭

력상답소와 여성단체의 지속적인 노력이 없었다면 성폭력 피해생존자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 지금보다도 더 후진적인 상태에 있었을 것이다.

### 성폭력으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원인, 생물학적 원인이 아닌 가해자

#### 장애에 대한 병리적 치료 이전에 예방과 법적 제도 마련이 우선

성폭력 피해생존자들이 겪는 고통은 생물학적 혹은 유전적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질병과는 차원이 다르다. 성폭력 이후 이들이 겪게 되는 심리적 고통은 외상의 반복적인 재경험, 이와 연관된 생각이나 감정을 회피하는 증상, 수면장애와 같은 과도한 불안과 각성상태, 분노감을 수반하게 된다. 이러한 정서적 반응은 충격적 경험을 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게 되는 것이지만 성폭력은 가해자가 있다는 점에서 재난이나 개인적인 상실로 인한 외상(trauma)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가해자의 폭력에 의한 피해자인 경우, 정서적 장애는 비슷하더라도 외상을 일으킨 원인이 되는 가해자에 대한 법적 정의실현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성폭력 피해에 따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가해자의 폭력이라는 외적사건이기 때문에 가해자의 성폭력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과 법적 처벌을 강화하는 제도가 있다면 발생률이 낮은 장애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거시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당장 발생한 피해자에 대해서는 다양한 지원시스템과 심리치료 등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Evidence based psychotherapy와 치료효과 그리고 알 권리

성폭력 피해 생존자들에게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경계선 성격장애가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미국이나 선진국의 경우 이러한 장애에 대해 엄격하게 통제된 연구를 통해 검증된 심리학적 치료를 주치료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다. 경험과학적으로 검증된 심리치료(Evidence based psychotherapy) 움직임은 지난 70여 년 간의 단순대화중심의 심리치료와 상담기법이 실제로 호소하는 증상의 경감을 가져오지 않았다는 학계와 보험업계, 정부기관의 비판 이후에 시작되었다. 따라서 미국의 연구기관과 정부기관, 소비자들은 자신이 받고 있는 심리치료가 어떠한 효과가 있으며 효과성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 알 권리를 주장하고 있고, 이러한 맥락에서 미국 보건국 산하 연구 및 예산집행기관인 약물중독 및 정신건강 서비스청(Substance Abuse and Mental Health Services Administration, www.samhosa.gov)에서는 공개적으로 검증된 효과적인 심리치료기법을 등재하여 소개하고 있다.

### PE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치료방법은 Prolonged Exposure Therapy(PE)라고 하는 지속적 노출치료이다. 이 기법은 펜실베이니아 의과대학 교수인 심리학자 에드나 포아(Edna Foa) 박사가 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해 정제된 방법으로 평생을 바쳐 연구한 기법이다. 성폭력 피해생존자들이 겪는 감정적·인지적 회피를 기억회상을 통해 지속적으로 노출시킴으로써 왜곡된 기억과 인지를 수정하는 심리치료 기법으로, 그 효과는 수백편에 이르는 임상적 연구에 의해 검증되었다.

### DBT

마찬가지로 경계선 성격장애에 대한 SAMHOSA에 등재된 유일한 치료방법은 Dialectical Behavior Therapy(DBT)라고 하는 다이어렉티컬 행동치료이다. 이 치료 방법은 워싱턴주립대학 심리학과 교수인 마샤 리네한(Marsha Linehan)에 의해 연구되고 개발된 것으로서 감정격변이나 감정조절장애의 문제, 만성적 자살이나 자기파괴적 행동을 보이는 경계선 성격장애 치료에 획기적인 효과가 검증되었다.

성폭력 피해생존자를 위한 다이어렉티컬 행동치료와 지속적 노출치료는 모두 미국 보건국의 SAMHOSA에 해당 장애를 치료하는 심리치료 기법으로 등재되어 있다. 앞서 말한 두 심리학자는 오직 성폭력 피해자와 자살 위기자 등 음지에서 고통을 받으며 살아왔던 소수자를 위해 연구자로서의 삶을 헌신하였으며 누구보다도 한국의 여성운동과 활동가들의 노력에 감동하는 동역자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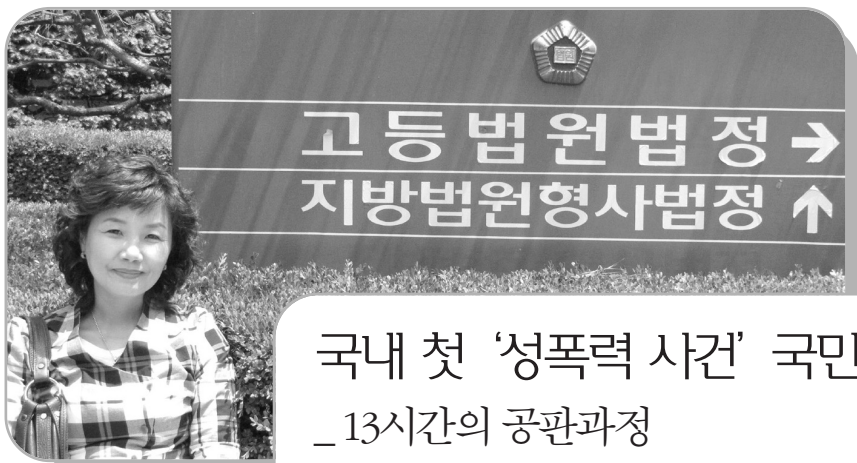
### 외상 이후, 정서장애와 미래의 기회 상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발전된 피해자의 경우, 2차적으로 다양한 정서장애와 성격적 장애가 나타난다. 특히 심각한 것은 경계선 성격장애 증상이다. 경계선 성격장애는 감정적 기복이 심하거나 분노와 짜증과 같은 부정적 감정이 주체하기 어렵고, 대인관계가 불안정하여 지속적으로 위기를 경험하게 되는 장애다. 행동적으로는 자살행동이나 자살위협, 혹은 자기파괴적 행동이 지속되어 생명손상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러한 성격장애로의 발전은 감정적 민감성을 타고난 생물학적 소인과 성폭력이나 폭압적 환경 등으로 인해 나타나는 비수인적 환경요인이 어느 정도 결합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부수적으로는 우울이나 불안장애, 섭식장애가 발생한다. 이러한 정서장애가 만성적으로 지속될 경우, 정상적인 관계형성이 어려워지며 이러한 정서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많은 노력과 시간을 들이게 되어 외상이 없는 사람에 비해서 미래의 기회를 상실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 활동가로서의 치료자 치료자로서의 예방활동가

성폭력 피해생존자들에게 이렇게 검증된 심리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은 전문가가 윤리적으로는 당연한 것이다. 물론 이러한 치료기법이 만능이 될 수는 없지만 평생을 고통받은 이들이 과학적으로 검증된 치료를 받고 나서 재발되지 않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정부와 기관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필수적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치료전문가들이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심리치료를 하기 전 피해자들에 대한 진정성, 성폭력 현실에 대한 또렷한 의식, 소수자와 여성에 대한 인권의식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한국에서는 활동가로서의 치료자, 또 치료자로서의 예방활동가가 절실하다는 것이 나와 더불어 앞서 말한 포아 박사, 리네한 박사의 일치된 의견이며 이러한 치료자가 훌륭한 교육과 수련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

나눔터  
SURVIVOR'S VOICES



## 국내 첫 '성폭력 사건' 국민참여재판 \_ 13시간의 공판과정

◎ 책임상담활동가 보듬이

국민참여재판이 시작된 지 1년이 넘었다. 일반인이 배심원으로 참여한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첫 재판에서 강도, 상해 피고인에게 이례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져 향후 형량을 줄이려는 피고인들의 신청이 이어지고 있다.

오늘의 재판을 보기위해 모인 70여 명의 방청객 인원을 봐도 그 관심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 우리나라에서의 배심원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작되었고, 배심재판은 형사사건 중 살인·강도·성범죄 등 법정형이 중한 범죄에 한해서 신청할 수 있다.

본 사건의 피해자와의 첫 만남은 상담소에서 이루어졌다. 상담소에서 만난 피해자는 경찰서에 고소 직후 눈물을 펄펄 쏟으며 남자친구와 같이 상담소를 찾아왔다. 화장기 없이 바들바들 떨고 있는 모습으로 울면서 말하고, 또 울면서 힘겨워 하는 모습은 작고 하얀 비둘기 같아서 손을 잡아 볼 수도, 잠시 동안 말을 건넬 수도 없었다. 꼭 안아주고 싶었다. 우리는 그렇게 만났고, 길고 긴 경찰조사가 시작되었다.

경찰조사에서 피해자는 또 한 번 눈물을 쏟아야 했다. 가해자는 조사를 자꾸 미루었고, 경찰은 '가해자가 지방에 내려 가야한다는데, 술 약속이 있다는데 내가 어떻게 하느냐'며 가해자 조사를 서둘러 주지

않았다. 피해자를 힘들게 하는 말도 서슴치 않았다. '녹음 잘 하시는데, 이 말도 녹음을 하겠네요?' 라는 말을 듣기도 하는 등 피해자는 2차 피해를 호소하며 경찰에 대한 불신은 점점 커져갔다.

그 사이에 가해자가 어떻게 집을 알았는지 피해자의 집에 찾아왔고, 다시 112에 신고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처럼 가해자가 밖에서 활개치고 다니며 피해자에게 또다른 가해를 가하는 동안 피해자는 집안에서 커튼을 내리고 문을 꼭꼭 잠그고 불을 끄고 지내는 생활이 시작되었다. 그렇게 경찰조사, 검찰조사가 8개월 동안 진행되었다. 전과 14범인 가해자는 본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다른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 받았고,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는 뻔뻔함을 행하였다. 그렇게 국민참여재판은 열리게 되었다.

국민참여재판은 재판 당일 오전 11시 30분에 배심원을 선정하는 일부터 시작되었다. 비공개로 배심원을 결정하였는데 인터뷰를 통해 40명 중 9명의 배심원과 예비배심원 1명을 선출하였고, 점심식사를 한 후 2시에 피해자가 증인이 되어 재판이 시작되었다. 법원에서 비공개로 피해자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공판검사와 수사검사가 참석했고, 검사와 변호인은 배심원과 피고인석의 중앙에 서서 질문을 시작하였다.

배심원들은 본 사건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 상황에서 배심원 자리에 앉았고, 판사는 배심원들에게 강간과 폭행·협박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고, 상해가 있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검사와 국선 변호인의 질문, 그리고 피해자의 진술까지 4시간이 걸렸다. 검사와 변호인의 질문은 비교적 짧고 간결했지만 배심원들이 있고, 대법정에서 느껴지는 위압감을 피해자는 잘 이겨내며 하고자 하는 말을 잘 했다. 피해자에게 피해상황을 다시 떠올리기에 충분할 만큼 시간을 넉넉히 준다는 생각도 들었다. 비디오실에서 공판과정을 지켜보는 상담자도 피해당시의 공포를 느끼게 하였고 눈시울을 붉히게 했다. 심문 도중 눈물을 흘리는 배심원도 보였다.

하지만 상담자가 느끼기에 진술이 다소 길어진다. 불안감이 생겼다. 일반 형사재판에서 피해자는 짧게 진술하고 '예', '아니오' 라고 대답하는 상황이 대부분이다. 그리고 권위적이고 위압적인 법원 분위기에서 피해자들은 하고자 하는 말을 충분히 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다. 혹시나 오늘도 그런 상황이 오면 피해자가 진술하는 데 있어 위축감이 들 것이라는 걱정이 있었다. 중간에 피해자의 말을 멈추게 하거나 반복적인 진술을 지적하는 상황이 오면 위축감이 들고 피해자의 진술에 어려운 고비가 되지 않을까 걱정도 들기 시작했다.

다행스럽게도 상담자가 우려하던 상황은 오지 않았고, 피해자의 진술은 가슴 아프게도 하고 눈물을 흘리게도 했다.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변호인의 질문에 피해자는 '그런 질문에 대답해야 하느냐, 질문의 의도를 알려달라'고 당당하게 판사님에게 이의를 제기했고, 판사님도 이를 수용했다.

4시간의 진술시간은 피해자를 힘들게 하기도 했지만, 피해자의 감정적인 부분까지 충분히 말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판사님은 재판과정에서 피해자가 충분히 대답할 수 있도록 들어주고 기다려 주었다. 눈물을 닦을 수 있도록 티슈를 가져다주는 배려도 있었다. 또한 채택된 증거는 배심원들이 함께 검토하였는데, 증거로 제출한 카메라 촬영과 녹음을 피해자가



직접 설명하며 배심원들에게 듣게 하였다. 피해자는 떨리는 목소리와 울음 섞인 목소리, 때로는 아무진 목소리로 진술을 무척 잘 해주었다. 얼마나 가슴이 벅찬 시간이었는지, 얼마나 가슴 졸이는 시간이었는지, 본 상담자의 솔직한 마음은 딸을 혼자 보내고 지켜보기만 해야 하는 엄마의 마음, 그런 심정이었다.

오후 2시에 시작한 재판은 피해자 심문, 가해자 심문을 마치고 배심원 판결 이후 최종 선고까지 진행되어 다음날 새벽 3시에 끝을 냈다. 8개월 동안의 경찰 조사와 검찰조사에 지쳐가고 갑작스레 수사검사가 교체되면서 재판 1주일 전에 다시 증거제출을 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으면서 배심재판 13시간 30분 만에 실행선고까지 받게 한 위대한 결과였다.

배심원들의 만장일치로 '강간 치상'이 적용되었고 배심원들이 준 형량을 평균화하여 실행 4년을 받았다. 유사 사건에 비해 형량이 많이 나온 편이라 가해자는 항소할 것이고, 그러면 형량이 조금 감해질 수도 있다는 걱정은 아직 남아 있지만 두렵지 않다. 피해자는 본 과정을 통해 자신이 왜 그토록 가해자를 고소하고 싶어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했고 분명 더 강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상당실에서 국내 첫 '성폭력 사건' 국민참여재판 13시간의 공판과정



[편집자주] 생존자의 목소리 꼭지는 성폭력피해생존자의 투고로 채워지며, 연재 혹은 단회로 독자 여러분과 만남을 갖습니다. 글 보내주실 곳은 ksvrc@chol.com 입니다. 이번 호에는 '水'의 연재수기 열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연재 13th

## 가라, 너! 이빠란 사람아

◎ 水

그 사람은 오늘 뭔가 특별한 것을 준비한 듯 하다.

하얀 사기그릇에 맑은 물을 한잔 담아 왔다. 그 밤은 유난히 달빛도 밝아서 창호지를 바른 뒷문으로 들어오는 빛이 색다르게 느껴지던 밤이었다. 그 사람은 맑은 물이 담긴 사기그릇을 방 한 가운데 두고 마주 보고 앉게 했다. 나는 왜 그렇게 앉으라는지 영문도 모른 채 자다 말고 일어나 앉았다. 지금에서야 생각하는 거지만 그때 우리 가족들은 모두 어디 있었는지 정말 궁금하다. 집에서 항상 존재했던 사람은 나와 그 사람뿐인 것 같다.

그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엄숙한 의식을 거행하는 사람처럼 조용조용 말했다.

“OO야, 우리 이제 결혼식 할 거야, 지금은 이렇게 정한수만 떠놓고 하지만, 나중에 너 외국에 나가 있으면 내가 가서 결혼식 제대로 올려줄게, 넌 거기서 내 아이 낳고 살면 돼”

하도 기가 막히면 ‘췌’ 소리도 할 수 없는 것 같다. 아무 소리도 할 수 없었다.

“자, 내 껌 잡아봐, 나도 니 껌에 손 얹을게. 이게 약속이야, 이제부터 다른 사람한테는 허락하지 않을게.”

내 손을 끌어다 그 사람의 더러운 것에 얹어놓는데 기가 막힌다. 이게 뭘 짓인가 싶기도 하고, 그 사람은 가만히 내 몸에 손을 얹고는 자신의 신에게 기도라도 하는지 잠시 동안 눈을 감고 조용히 있었다.

“이제부터 우리는 진짜 부부야, 니 엄마는 큰 형님이라고 생각하고, 이제부터 형님이라고 불러, 알았지? 자, 이제 내 껌에 뽀뽀해, 나도 해줄게”

내 머리를 끌어다 더러운 것에 들이밀었다. 그리고 내 몸에 입을 갖다 대는 것이다.

온 우주에, 아니 우리 집 안에는 늘 그 새끼와 나만 있다. 이럴 때 엄마와 오빠, 동생들은 모두 어디 있는 것인지 도무지 기억할 수 없다. 늘 그랬다. 가족은 분명 여섯 명이었는데, 늘 그 사람이 나에게 이런 짓을 할 때는 아무도 없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너무 편하게 하고 싶은 대로 나에게 하는 것이다. 첫날밤을 치르듯 그 사람은 잔뜩 흥분을 한 모양이다. 끌어다 얹어놓은 내 손

온 우주에, 아니 우리 집 안에는  
늘 그 새끼와 나만 있다.  
이럴 때 엄마와 오빠,  
동생들은 모두 어디 있는 것인지  
도무지 기억할 수 없다.

안에 그 사람의 더러운 것이 점점 단단해지더니 무기로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커져버렸다.

그 사람은 이제 준비를 마쳤다는 듯 야릇한 미소를 띠었다.

“이제 오늘이 진짜 부부로는 첫날밤이야.”

그날도 아픈기 마참가지였다. 그러나 그 사람은 내 몸이 아픈 것에 신경 쓸 겨를이 없는지 혼자 마음대로 씹적거리고, 하얗고 끈적거리는 액체를 쏟아놓고는 잠이 들었다. 달빛은 나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전혀 모르겠다는 듯 비추고 있다. 이럴 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나는 저 사람과 이렇게 지내고 싶지 않은데, 그냥 진짜 아빠 역할만 해주었으면 하는데 저 사람은 왜 자꾸 나한테 이 지랄을 하는 것일까? 이럴 때 가족들은 모두 어디 있는 것일까?

그들은 나와 아빠의 관계가 의심스러운 듯 말을 하면서도 그냥 넘겨버렸다. 지난번에 엄마가 피임약을 발견했을 때만 해도 그렇다. 엄마는 자궁을 들어내는 수술을 받았다. 그래서 엄마는 피임약이 필요 없다는 것은 온 가족이 아는 사실이었다. 그런데 그날은 엄마가 책상서랍에서 피임약을 발견했다. 집안은 발각 뒤집혔다.

“이게 왜 필요해? 저년이 아빠 붙어먹었지? 집에서 이게 필요한 사람이 어디 있대구?”

“아니야, 이년아, 이거 예전에 너랑 쓰던 거 남은 거야, 계속 그럴래?”

오히려 엄마를 협박하며, 거짓말을 하는 그 사람의 표정은 어느새 엄마를 정신병자로 만들고 있었다. 의부증 환자가 되어버린 엄마는 아빠의 주먹 앞에 자신의 추측이 틀렸다고 인정해버렸다.

나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고, 들리지 않는 척 가만히 있었다. 나는 ‘내가 아빠 붙어먹은 년인가?’ 라는 생각에 빠져 더 이상 아무 것도 하지 못했다. 엄마는 온 가족이 다 들도록 내가 아빠 붙어먹은 년이라고 욕을 했고,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아빠가 엄마를 때리는 상황을 그냥 지켜봐야 했다. 다른 가족들은 우리 세 사람의 행동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어떤 반응도 하지 않았다. 심지어 엄마를 때리는 아빠를 말리는 모습도 볼 수 없었다.

동생들과 오빠들 앞에서 정말 쪽팔렸다. 초등학교생인 내가 아빠를 붙어먹었다니…….

### 그래, 늘 그랬다.

하루는 그 사람이 나와 동생들을 데리고 읍내의 비디오 가게를 갔다. 그때는 한창 강시영화가 유행을 났을 때다. 나는 어린이들이 보는 강시 비디오테이프를 빌렸다. 그 사람은 동생들에게 먼저 차에 가서 기다리라고 했다. 나만 비디오가게에 다시 데리고 들어갔다.

“아줌마, 여기 재밌는 비디오 있어요?”

아주머니는 비디오테이프가 잔뜩 꽂혀있는 책꽂이 뒤편에서 아무 제목도 스티커도 붙어있지 않은 검정 비디오테이프를 그 사람에게 주었다. 그 사람은 아주머니와 무언가 통했다는 듯 테이프를 검정 비닐봉투에 담아 가게를 나섰다.

나는 빌려온 강시 비디오를 동생들과 봤다. 숨을 쉬지 않으면 살아있는 사람도 지나치는 강시 영화는 당시 최고의 인기였다. 그래서 동생들과 얼마나 오래 숨을 참을 수 있는지 게임도 했을 정도다.

아무튼 그날도 밤이 깊었다. 다른 가족들은 자신들이 잠이 들어 몰랐지만, 나는 그 말이 믿어지지 않고, 그냥 그들은 그 사람과 나만 집에 두고 존재하지 않아버렸다. 피곤한 하루를 보내서

survivor's voices

생존자 밀려가기 - 수의 이야기 13th

쏟아떨어진 나를 단잠에서 깨운 것은 그 사람이었다.

“일어나 정신차려봐. 아까 빌려온 재밌는 비디오야, 자 정신 차려봐”

초등학생이던 나는 그 사람이 흔들어 깨우는 바람에 겨우 잠을 깼다. 처음에는 잠깨는 게 쉽지 않았다. 그런데 그 사람이 비디오를 켜는 순간, 다른 가족들이 깰까봐 TV볼륨을 ‘0’으로 해놓았어도 그 충격적인 장면으로 인해 잠이 확 깼다.

너무 하얀 피부여서 붉어 보이는 백인 남자가 벌거벗은 몸으로 나오는 비디오였다. 거기 나오는 사람들은 가슴도, 성기도 엄청나게 컸다. 당시로서는 ‘저게 사람의 몸일까?’ 싶을 정도로 컸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실제 남자와 여자가 관계를 맺는 장면이었는데, 아예 성기와 성기가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부분을 클로즈업한 이상한 화면이 긴 시간 지속되었다는 것이다. 그뿐 아니라 방금 전까지 남자와 짐승처럼 소리를 내며 그 짓을 하던 여자가 욕탕 안에서 다른 여자와 키스를 하고 몸을 어루만지며 또 이상한 소리를 내는 장면이 계속되었다. 또 가족 끈 같은 걸로 서로 몸을 때리고, 묶으며 신음소리를 내며 그 짓을 했다. 방금 전까지 무척 피곤했는데 잠도 확 달아났고, 무섭기까지 했다. 이런 영화를 보여주는 건 왜일까 싶어 걱정이 되었다.

그 사람은 집중해서 영화를 보더니 내 몸을 꼭 잡았다.

“야, 저 여자처럼 저렇게 엮드려봐, 이렇게 해”

그러더니 내 허리를 뒤에서 꼭 쥐어 잡고는 엮드리게 했다. 그리고 딱딱해지고 커진 그 사람 성기를 뒤에서 내 몸으로 강제로 밀어 넣으려 했다. 너무 깊숙이 들어가 내 뺨속까지 쑥 들어오는 것 같았다. 배가 아픈 건지, 밑의 성기 부분이 아픈 건지 알 수 없었다. 그냥 내 몸이 모두 아팠다. 어딘가 찢어진 것도 같고,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너무 수치스러웠다. 나는 이려고 싶지 않다. 나는 저 새끼처럼 미치지 않았는데, 개새끼가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몸을 마음대로 하는 게 싫다. 지랄 미친 새끼, 동물 같은 새끼, 이놈한테서는 어느 새 세상에서는 말아볼 수 없는 동물 냄새가 나기 시작했다. 토할 거 같다.

그 사람은 혼자 신음소리를 내며 진짜 좋아서 그걸 하고 있었다. 그러더니 이제는 다른 짓을 해 보고 싶은 모양이다.

“야, 이번에는 그래, 이렇게 해봐, 아니 이렇게, 그래, 시키는 대로 해봐, 저거 보고”

그 사람은 그 영화에 나오는 짓거리들을 모두 흉내내보고 싶은 모양이다. 지금은 잘 기억도 나지 않지만 그때 나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이상한 자세들을 강요당해야 했다.

그날 이후 학교에서 수업을 받을 때도 내 눈 앞에는 친구 옥희네 집의 젖소 젖같이 큰 가슴을 가진 서양여자들의 모습과 금발의 꼬불꼬불한 털이 가득했던 서양여자의 성기에 길쭉한 서양남자의 성기가 들락날락하는 장면이 계속 보였다. 어쩌면 저렇게 노골적인 장면을 가까이서 찍었을까 싶은 그 모습을 본 것이 부끄럽기도 했고, 다른 사람들이 전혀 보지도 알지도 못하는 장면을 알고 있다는 죄책감도 들었다. 수업시간에 이런 장면이 떠오를 때면 나는 나도 모르게 혼자 고개를 흔들어 화면을 흐트러곤 했다. 그러나 그 영화의 장면들은 지금까지도 생생하다. 지금까지도, 개새끼가 나에게 준 동물 같은 기억들은 몸에만 남은 게 아니라 내 머릿속에도 박혀있는 거 같다. 그때의 그 상황, 기억, 냄새, 영상, 소리, 모두 다.

나는 이려고 싶지 않다.  
나는 저 새끼처럼 미치지 않았는데,  
개새끼가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몸을 마음대로 하는 게 싫다.

그 사람은 늘 어떻게 나를 괴롭힐까만 생각하는 사람 같다. 어느 날은 그 사람이 하루 종일 서울엘 다녀온다고 갔다. 그럴 때면 나는 밖에서 문을 잠가둔 집안에 갇혀 있어야 했다. 그날도 가족들은 어디 갔는지 기억에 없다. 밤에 그 사람은 또 잠자는 나를 깨웠다. 한밤중 모든 가족이 잠든 시간인 것도 같다. 그 사람은 나를 위해 뭔가를 준비한 듯 했다.

“내가 뭐 사왔는 줄 알아? 너가 요즘 권태기인 것 같아서 준비했어”

그 사람이 내 눈앞에 내민 것은 팔뚝만큼 크고, 징그러운 그것이었다.

“니가 전혀 흥분을 못하니 자위를 하고, 내가 이걸 너한테 밀어 넣으면 다른 남자 상상하면서 해, 니가 지금 권태기라 그래, 내가 너 위해서 이거 얼마나 힘들게 구했는지 알아? 청계천까지 가서 샅다니까”

그 사람은 자신이 나를 괴롭히는 것을 나를 위해 하는 봉사행위라고 생각해버리고 싶은 모양이다. 내 몸을 지 멋대로 한다. 아프고, 쓰라리다.

“이제 좀 좋아? 자 이제 이거 넣을게, 이거 넣어서 좀 흥분하면 그때 내 꺼 넣어줄게”

그 사람 것보다 훨씬 굵고, 길다란 그것을 내 속으로 밀어넣으려 했다. 내 몸이 다 찢어지는 것처럼 쓰리고, 아팠다. 난 사람이 아니다. 이 사람에게 나는 사람이 아니다. 그래 이렇게 생각해버리는 게 나아, 저 멀리 천장에 붙어있는 파리가 되어야지.

“좀 참아봐, 그럼 좋아질 거야, 다른 남자 상상하라니까. 이게 아주 큰 사람이라고 생각해, 너 이 정도는 들어갈 수 있어”

계속해서 강제로 내 몸을 가지고 하는데 어떻게 막을 수도 없었다. 정말 나를 가지고 놀고 있다. 나는 이 사람에게 더 이상 살아있고, 생각과 느낌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다. 딸은 더더욱 아니다. 나는 그 사람에게 손에 들고 있는 성기 모양 만큼이나 무생물이다.

그렇게 조금씩 힘으로 밀어넣다가 더 이상 들어가지 않자 직접 자기가 나를 위해주는 것처럼 “이제 진짜 들어간다”라며 내 위로 올라왔다. 그 사람은 정말 나를 위해 해주는 걸로 생각하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했다. 입이 있어도 아무 말도 할 수 없고, 몸에 손과 발이 달려있어도 아무 행동도 할 수 없었다. 생각 같아서는 저 새끼 몸에 달린 그것부터 살갓 하나하나를 직접 내 손으로 짹짹 찢어내고 싶은데…….

그 사람은 그것을 검은 비닐봉투에 담아 침대 밑에 두었다. 그리고 수시로 밤마다 그걸 꺼내 내 몸에 넣어보곤 했다. 색다르게 무언가를 시도해보고 흥분하고 싶어하는 그 사람의 갖은 노력(?)에도 내 몸이 반응하지 않자 그 사람은 더 갖가지 노력을 했다.

그렇게 나를 가지고 장난치던 일도 싫증이 난 모양이다. 하루는 나를 얹혀놓고 진지하게 말했다.

“너가 아무래도 불감증이 심한 것 같애, 그럼 나중에 애도 못 갖는데, 그러니까 지금 치료를 하자, 불감증 잘 고치면 권태기도 지나갈 거야. 안산 시내에 가면 성인극장 있거든, 거기 가면 남자들이 많이 있어, 가서 내가 뒤에 앉아있을 테니 모르는 남자 옆에 가서 앉아, 그럼 그 남자가 니 몸을

survivor's voices

생존자 밀려가기 - 수의 이야기 13화

만지기 시작할거야, 이렇게 허벅지에 손을 얹을 거야, 그럼 그냥 가만히 있어, 그러면 보지도 만지고, 옷 속으로 손을 넣으려고 할 거야, 그리고 가슴도 만지려고 하고, 뽀뽀도 하려고 할 거야, 그럼 그냥 가만히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이 밖으로 나가자고 하면서 여관에 가자고 할 거야, 그럼 따라가는 척 하다가 내가 데리고 올 테니 거기까지만 해봐, 그럼 잔뜩 흥분될 거야, 그럼 집에 가서 내가 해줄게”

나는 그 말만 들어도 미칠 것 같았다.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계속 가기 싫다고 했다. 그러자 그 사람은 나에게 화를 냈다.

“야 이년아, 니가 무슨 성모 마리아라도 돼, 시키는 대로 해, 니가 그래도 안 속거든, 어차피 니 엄마 피가 섞여서, 니 엄마가 갈보였어, 이년아, 그 피가 어디가?”

그 사람은 강제로 나를 성인극장까지 끌고 갔다. 정말 후진 극장, 간판 그림도 이상하고, 이름도 듣도 보도 못한 저질 영화만 틀어주는 곳이었다. 거기에는 정말 아저씨들만 있었다. 그 사람은 양복을 차려입은 아저씨 옆으로 나를 데리고 가더니 자기는 그 뒤에 앉았다. 나보고 그 옆에 앉도록 한 후 바로 뒤에 앉아 나와 그 아저씨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 아저씨는 정말 그 사람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팔걸이에 손을 내리는 척 하더니 내 허벅지에 손을 얹고는 주무르기 시작했다. 나는 그 느낌이 그 사람의 그 짓만큼 더럽게 느껴져 벌떡 일어나 영화관을 나왔다. 그러자 뒤에서 지켜보려던 그 사람은 급하게 나를 따라 나오며 내 귀에 대고 딱딱하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야, 이년아, 니가 그러다고 내가 널 깨끗하다고 생각할 거 같아, 니가 다른 남자를 원한다는 거 알아, 너 이따 집에 가서 보자, 죽었어.”

도대체 뭘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이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하길 원하는 것일까?  
왜 나한테 이런 짓을 하도록 하는 것일까?

도대체 뭘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이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하길 원하는 것일까? 왜 나한테 이런 짓을 하도록 하는 것일까? 그 사람은 조수석에 나를 앉힌 후 운전을 하며 가던 중에 주먹으로 나를 세계 때렸다. 왼쪽 눈을 정통으로 맞은 나는 눈이 흐릿해졌다. 눈물은 흘러지 않았다.

“이년아, 내가 너 위해서 이러는데 왜 그래, 이년아, 니가 깨끗하지 않다는 거 알아, 너도 그렇게 하는 거 원하면서 왜 그래?”

입술을 꼭 물고, 힘주어 말하는 그 사람의 개 같음에 질려버린 나는 눈두덩이가 통통 붓도록 맞았지만, 울지 않았다. 그렇게 맞으며 집에 도착하자, 성인극장에서 한 협박을 실행하기 위해서인지 안방으로 끌고 가 그 짓을 했다. 일부러 폭력적으로 더욱 내 몸을 아프게 하기 위해 노력해가며 그 짓을 했다. 이날은 더욱 힘들고, 아프게 나를 괴롭혀 이제 더 이상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강하게 생각했다.

가라, 너! 아빠란 사람이! ☹

■ 水의 한마디

휴가를 냈다, 하루 종일 생각을 하면서 여유롭게 '수의 한마디'를 정리하고 싶어서. 사실 이번 호 글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쓰고, 읽고, 고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계속해서 수치스러웠다. 내가 느껴야 할 감정이 아니다, 아니다 스스로에게 말해주었지만 쪽팔린다는 그 느낌은 해결되지 않았다. 힘들었다. 이건 그 새끼가 느껴야하는 게 아닐까? 내가 왜 이러지? 두어 달 전 내가 살아온 삶이 빚어놓은 내가 너무 싫고 부끄러웠던 날이 있었다. 그날 나는 그 사람에게 전화를 했다.

"여보세요?"

"나야, 나. 니 딸 OO."

"아이구, OO야, 잘 지내나?"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알아?"

"야, 그래도 부모한테 잘 해야지 너 나한테 이러면 안 된다, 앞으로라도 잘 살고 싶으면 부모한테 잘 해라."

"부모? 야, 너 미안하다고 해, 미안하다고 하란 말야"

"뚜~뚜~"

미친 놈이 먼저 전화를 끊었다. 나는 다시 걸었다. 내 번호가 뜨지 않게 전화를 걸다가 나는 그냥 내 번호가 뜨게 전화를 했다. 난 더 이상 그 새끼 안 무서워 할 거다.

"이게 전화를 끊어? 미안하다고 하라고"

"미안하다 뿐이냐"

"그냥 미안하다고 하라고, 너 때문에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알아? 미안하다고 해, 미안하다고 하라고, 내가 만약 예라도 자살해서 죽으면 너 때문인 줄 알아, 새끼야"

미친놈에게 소리소리 지르고, 전화를 끊고 나서 집에 웅크리고 앉아 한참을 울었다. 이제는 그 사람이 더 이상 무섭지 않다. 그래, 무서워하지 않을 거다. 내 전화번호도 일부러 안 바꿨다. 개새끼가 전화 오면 개소리해주면 되지, 뭐.

■ 이제 水의 글쓰기는 또 다른 국면을 맞이해야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과거의 힘든 기억들을 풀어내기 위한 글쓰기였다면, 이제부터는 지금을 살고 있는 수를 써보고 싶습니다. 더 이상 그 사람도, 그 사람의 짓거리들도 없는 지금의 삶을 사는 수의 이야기를 써보고 싶습니다. 지금은 과거보다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 써보고 싶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의 글을 엮어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보고 싶은 욕심도 생깁니다. 혹시, 그 작업을 함께 하고 싶은 분이 독자 중에 계실까요? 사진을 잘 찍거나, 귀여운 그림을 그려주실 분, 글을 잘 손봐주는 친구, 제목을 잘 만드는 친구를 만나면 참 좋겠습니다. 이 힘들고 짜증나는 이야기를 함께 봐온 이들과, 이 이야기가 여기서 멈추지 않도록 작업을 해보고 싶습니다. 거창한 책이 아니라, 생존자들과 나눌 수 있는 아주 작은, 그런 책 말입니다.(관심있으신 분은 상담소 편집자를 통해 연락주세요)

survivor's voices

생존자 밀하기 - 수의 이야기 13화

# Diary 열림터 다이어리



여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열림터 활동가들이 일하는 사무실 창이  
서쪽으로 크게 나서 여기는 참 뜨거운 하루를 보냅니다.  
특히 오후 3시가 되면 차마 눈을 뜨고 있기도 어려워요. 조금 과장해서 말해보았습니다.  
하하. 열림터에 재정일과 행정 일을 깔끔하게 해주시는 마리 선생님이 새로 오셨어요.  
이어지는 글로 첫 인사를 대신합니다. 그리고 송미현 선생님이 새 원장으로 오시게 되었습니다.  
열림터 식구들만큼이나 활동가 새 얼굴도 많이 보이는 요즘입니다. 많은 응원을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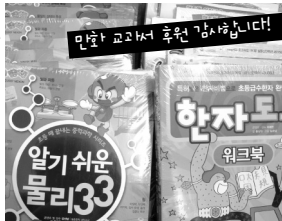
나눔터  
SURVIVOR'S VOICES

### ▶ 우리도 한목소리로 외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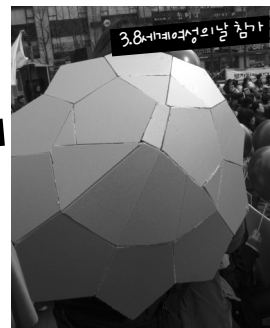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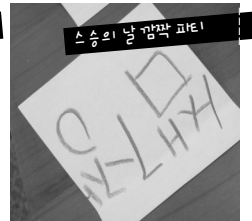
#### ▶ 한가한 날의 봄소풍



#### ▶ 열공을 위한 후원



#### ▶ 쌤 쌤! 고맙습니다



## 테디보이를 읽고



토끼

나는 5월 3일 <테디보이>라는 책을 읽었다. 이 이야기는 순정소설이고 어떤 잘 생긴 남자와 공부짱 몸매짱에 집안도 안 좋은 여자아이가 사랑에 빠지는 이야기이다. 남자 주인공 이름은 김서진, 여자 주인공은 박소은. 김서진은 부자이고 얼굴도 잘생기고 별명이 테디보이다. 테디보이인 이유는 항상 곰인형을 가지고 다니기 때문이다. 소은이의 친구 민지는 공부도 잘하고 얼굴도 예쁘고 집안도 꽤 좋은 편이다. 고1인 소은이와 민지는 어느날 교문 앞을 지나가다가 서진이와 부딪쳐서 인연을 맺게 된다. 그 후로부터 서진이

와 소은이의 사랑이 시작되는 이야기이다. 조금은 싸우고, 울고, 감동하고, 헤어지고 질투하는 이런 이야기가 들어있어서 더욱 흥미있고 재미있었던 거 같다. 조금은 구분하기 힘들고 너무 서툰데하지만, 한편으론 책이 빨리 빨리 진행되어서 좋았다. 인터넷 소설로 되어있긴 하지만 그게 더 이해하기 쉽고 좋은 것 같다. 그리고 아쉬웠던 점은 너무 허무하게 끝날 때 너무 아쉬웠고, 끝부분을 더 정확하게 안 하는 점이 조금 더 아쉽다. 이 말은 조금 그런 얘기지만 나도 이 책을 읽으면 이 소설 주인공인 소은이가 되고 싶은 때가 많다. 지금도 소설책속의 소은이가 되었으면 한다. 그런데 아마도 이 소설의 주인공 소은이가 된다면 더 많이 힘들지도 모른다. 아마도 사랑 때문에... 이 책에서 조금 깨달은 점이 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고통과 시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바로 이 테디보이 순정소설 주인공 소은이처럼 말이다. '언젠가 누군가 나의 마음을 열어 주겠지?' 하고 생각해 본다. 조금은 어렵겠지만... 하여튼, 다음에 볼 다른 순정소설이 기대가 된다. 읽을 것이 많은데..^^



마리 쌤

처음 이 책을 손에 받아들고 경충경충 뛰며 좋아하던 토끼의 모습이 아직도 선하구나. 키도 제일 큰 토끼인데, 사무실 천정을 뚫고 나가는줄 알고 선생님 눈이 더 휘둥그레 해졌을 거야. 토끼가 너무나 좋아했던 책이라, 선생님도 호기심이 생겨 한번 읽어보았어. 선생님은 난무하는 이모티콘들 때문에 책읽기가 수월치 않았는데, 하루 만에 읽었다며 자랑한 걸보니, 요즘 학생들은 자유로운 형식에 익숙한가보다. 책 속에 조그만 포스트잇에다가 "맨 처음 본 소설. 이 책 덕분에 별로 친하지 않던 친구하고 얘기를 나눌수 있었던 좋은 책이었다!! ^^"라고 쓴 글귀를 보고 선생님도 토끼 나이 때 친구들과 순정소설을 서로 돌려보며 재잘재잘 얘기를 나누던 기억이 떠오르더라구. 책을 읽을수록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고, 어떤 장면에서는 얼굴도 빨갛게 지고..... 한번 읽게 되면 나를 계속 찾게 되는 묘한 중독성도 있고. 후에 실제로 연애를 했을 때, 오히려 그 책에 배신감(?)을 느끼기도 했었지. 책 내용은 현실과 다르다는 주의사항을 작가는 일부러 빼놓았겠구나 싶었다.

귀여운 우리 토끼. 앞으로 다양한 책들을 읽다보면 곁에 오래 두고 싶은 책, 인생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친구 같은 책들을 발견하게 되겠지. 어떤 일을 하더라도 고통과 시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니, 장난기 많은 토끼가 어느새 훌쩍 커버린 기분이야. 잊지 말아야 할 건 고통과 시련은 어느 곳에나 있지만, 역시 그 문제를 풀 답도 어느 곳에나 있다는 것이란다.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 아니겠어? 다음에 읽겠다고 주문한 책도 재미있게 읽기 바라구. 이번엔 또 어떤 토끼의 감상이 나올지 기대하며 이만 펜을 놓을게. ☺

[편집자주] 열림터 가족들이 더 폭넓은 경험과 배움의 기회를 갖기 위해 복권기금 후원으로 문화활동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창 로맨스 소설에 빠져있는 토끼가 선택한 책은 <테디보이>라는 책이에요. 책 읽은 소감과 마리 쌤의 답장입니다.

열림터 생각 - 열림터 다이어리 / 테디보이를 읽고



# 몸을 만나다.

연재 1/3

◎ 페미니스트 가수/성문화운동 자문위원 지현

## 아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숙제를...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원고 청탁을 받고는 고민했습니다. 마스터베이션을 노래하는 페미니스트 가수 지현으로 글을 써야 할 것인가, 상담소에서 욕망찾기를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래머이자 진행자이며 성문화운동 자문위원인 지현으로 글을 쓸 것인가, 아니면 문화학을 공부하고 있는 예비 페미니스트 문화연구자로서 원고를 완성할 것인가, 고민했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다가 '몸' 하면 떠오르는 나의 장면들을 꺼내보기로 했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김 서린 거울을 정면으로 쳐다보지 못하는 십대 소녀인 나, 차가워진 목욕물에서 즐겁고도 은밀한 놀이를 하는 다섯 살의 나, 이런 장면들이 떠올랐습니다. 몸에 대한 내 생각들은 첫 번째 글에서는, **변화하는 몸**에 대한 장면들을 통해, 두 번째 글에서는 **말하는 몸**에 대한 장면들, 세 번째 글에서는 **움직이는 몸**에 대한 장면들을 통해 보일 것입니다.

이 장면들은 여성으로서의 특별한 경험일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나는 정말 여성인가? 하는 질문도 생겼습니다. 이성애 규범에서 슬쩍 비껴있고, 이성애적 세상에 살지 않으니(!) (가부장제 세상의) 이성애 구조가 이름 붙여진 여성이라는 존재가 내가 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도 들고, 내가 생활하는 공간 안에 '남성'이라고 부를 만한 '남성성'을 가진 존재(예를 들면 가부장)도 별로 없고, 그러다보니 여성은 뭔가? 남성이

라는 존재 없이 여성은 존재하는 것인가? 하는 궁금함도 들고, 몇 명의 가부장제 소속 이성애자 여성들(페미니스트라 하더라도)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나오는 좀 다른 인식과 생각을 하고 있는 것도 같고, 아무튼 이런 복잡한 머리로 '여성으로서의 나의 몸'을 생각하려니 역시 쉽지 않았습니다.

요즈음, 몸에 대한 생각을 별로 하지 않고 지냈었습니다. 몸 자체보다는 몸을 둘러싸고 있는 이야기와 환경, 몸을 바라보고 있는 눈, 몸을 생각하는 머릿속 구조에 대해 추상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랬더니 '구성'이라는 단어와 '인식', '소비'라는 단어를 많이 떠올리고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단어들은 잘 와 닿지도, '몸'이라는 주제와 별로 어울리지 않는다고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몸이라던가, 욕망이라던가, 시선이라던가, 등등의 것들이 '원래' 존재한 것들이 아니라 만들어지고 변화하는 것이라면, 이런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몸에 관하여 갖게 되는 질문에 대한 생각을 발전시키기 무척 어렵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여러 질문을 던지고 고민을 하는 과정이 나에게서는 무척 흥미로웠고, 나를 사로잡았습니다. 이런 재미있는 (그렇지만 동시에 머리 아픈) 질문 던지기와 내 안에 있는 장면들을 다시 꼼꼼히 들여다보기를 할 수 있다면, 그런 과정을 독자들과 함께 나눌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 여성의 거드랑이 털은 부끄러운 것인가? 영화 <색계> 중

## # 변화하는 몸. 첫 번째 장면.

1986년 즈음 어느 날. 목욕탕.  
등장인물 - 중학생 소녀.

사춘기, 2차 성징이라고 불리는 변화가 내 몸에서 일어나던 시절에 나는 거울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붕긋해진 가슴이 반갑기도 했지만 두렵기도 했고, 싫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경험'했던 성폭력을 떠오르게 하기도 했고, 어렸을 때 사촌들과 동네 친구들과 길길, 킥킥거리면서 경험했던 엄마들이나 사랑놀이를 떠오르게도 하였습니다. 아마 그래서 싫었나 봅니다. 나에게 혹은 너에게 털이나 젖가슴이 없을 때 했던 '그 놀이'들은 좀 은밀했지만, 죄책감을 만들거나, 스스로를 '더럽다'고 느끼게 하지는 않았는데, 왜 가슴이 커지고 있는 나를 보면서 그 놀이들이 떠올라 우울한 기분이, 죄책감이 들었던 걸까요. 혹시 친구네 서랍장 깊은 곳에서 발견했던 포르노 책에 나오는 언니들과 비슷한 몸이 될까봐, 그 포르노 책이 나에게 주었던 불쾌감과 두려움 때문에, 내가 그런 존재가 될까봐 그것이 걱정이었을까요? 그런 몸을 갖게 되면, 포르노 책 속에 보여지는 그런 관계, 그런 질서 속으로 들어가게 될까봐 슬펐던 것일까요?

## # 변화하는 몸. 두 번째 장면.

1984년 즈음 어느 날. 거실.  
등장인물 - 초등학교 소녀, 할머니, 엄마, 삼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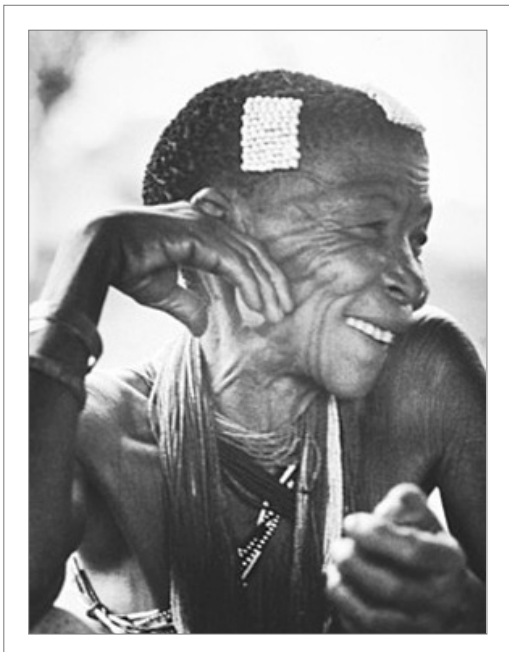
보들보들한 거드랑이에서 단순한 땀 냄새가 아닌 새콤한 냄새가 섞이기 시작하면서, 투명한 솜털이 점점 복실해지는 5학년 때쯤 나는 그것을 신기해하였고, 내 자신을 대견해 하면서 즐기기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식구들에게는 별로 환영받지 못하였습니다. (거드랑이의 복실한 솜털을 가족들에게-엄마, 할머니, 삼촌들에게-자랑했는데 반응은 정말 꺾이였습니다. 뭘 그런걸 보여 주냐, 에이! 예비! 등등. 어쩌면 그런 반응이 거울 속에 비치는 변화하는 몸을 바라보기 싫어하는 나의 태도를 만들어놓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칼라하리 사막의 한 부족인 '!쿵'의 소녀들은 자신이 아름답다고 생각한답니다. 사춘기를 겪는 자신의 몸을 낫설어 하지 않고, 비교적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고 하더군요. 모두 벗고 살기 때문일까요?

## # 변화하는 몸. 세 번째 장면.

1986년 발렌타인데이. 변소.  
등장인물 - 초등졸업반 소녀.

!쿵족의 여성들은 월경을 그냥 자연스러운 일상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생리혈을 다리에 흘리고 다니기도 하고 말이지요. 그래도 다들 모른 척 한다는군요. (이 이야기는 1969년에서 1971년까지 !쿵족과 함께 지내며 그들을 연구했던 마저리 쇼스타크의 책 '니사'<sup>2)</sup>에 나오는 이야기이니, 지금의 그들의 모습과 삶은 많이 다르겠지요. 재미있는 책이에요. 감동적이기도 하고요.) 초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던

1) '!쿵'의 느낌표는 !쿵족의 특별한 발음을 표시하기 위한 일종의 발음기호입니다.  
2) Shostak, Marjorie. 1981. NISA : The LIFE AND WORDS OF A !KUNG WOMAN. 「니사 : 칼라하리 사막의 !쿵족 여성 이야기, 유나영 역. 삼인.



발렌타인데이에 나는 생리를 시작했고, 그것이 무척이나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은밀하게 자랑했고, 역시나 별로 환영받지는 못했습니다. 초경부터 극심한 생리통을 겪어야 했는데, 복통은 기본이고, 구토에 식은 땀, 설사까지 매달 나를 괴롭혔습니다. 그때는 진통제가 사리돈 밖에 없었는데, 약이 하도 독해서 약을 먹으면 진통 효과는커녕 약 때문에 울렁거려 쓰러질 지경이었습니다. 꼬박 꼬박 다가오는 생리기간이 너무 지겨웠고, 싫었고, 두려웠고, 내가 여자인 것이, 아이를 낳을지 낳지 않을지도 모르는 내 자궁이 부담스럽고, 혐오스러웠습니다. 얼른 자궁 적출을 해야겠다고 매번 생각했답니다. 생리양은 또 어찌나 많은지 늘 취침용 생리대를 하고 다녀야 했고, 툭 하면 피가 새는 통에 학교에서 바지를 빼는 일이 부지기 수였습니다. 취침용 생리대를 하고 다니니 당연히 엉덩이 사이로 생리대가 툭 불거져 나왔고, 그 생리대가 보일까 좌불안석, 늘 초조했습니다. 몸에 잘 맞지도 않는

진통제 사리돈으로 그나마 생리통을 진정시키려는 나에게 학교 선생들이 들려주는 얘기란 진통제는 중독성이 있으니 먹지마라, 생리통은 견뎌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찾아가서 따지고 싶은 마음뿐입니다만. 초경부터 그랬는지 아니면 어느 순간부터 그런 증상이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생리 즈음해서는 기분이 몹시 좋지 않고, 생리 전 날에는 꼭 누군가와 싸우고, 배란기를 전후로 우울하고, 한 달의 반 이상을 생리와 호르몬에 지배를 받는 듯했습니다. 위에서 말했던 마저리 쇼스타이 여성의 생리와 호르몬에 대해 연구하기 위해 !콩족을 다시 찾아가 부족의 여성들과 인터뷰를 하고 혈액을 검사하고, 생리혈을 분석하는 작업을 하였는데, 당시 미국의 여성들이 겪고 있다고 여겨졌던 생리전증후군 PMS(Pre Menstruation Syndrome)은 !콩족의 여성들에게서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인터뷰에 응했던 여성들은 쇼스타이에게 거듭 '월경을 임신과 혼동하는 것이 아니냐'며 오히려 의아해 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미국의 여성들은 !콩족 여성들보다 환경호르몬에도 더 많이 노출되어 있었을 것이고, !콩족과 비교해 월경을 대하는 태도도 많이 달랐을 테지요.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흔히 '문명화' 되었다고 여기는 사회에서 여성들이 겪는 여러 여성혐오적인 문화, 여성의 몸을 혐오하는 문화에 의해 만들어지는 '신경증' 적인 반응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콩족의 한 소녀와 내가 스스로의 몸을 보는 시선이 서로 달랐던 것처럼 말이지요.

목욕탕 거울 앞에서 거울보기가 싫어서, 그 몸이 싫어서 우울해 하고 있는 중학생 소녀를 떠올리니 마음이 쓸쓸해집니다. 왜 그때 나를 토닥여주는 사람이 없었을까? 나는 왜 그 속상함을, 그 두려움을, 그 우울함을 나누지 못했을까? 지금 생각해도 여전히 속상합니다. 오늘은 잠깐 그 시절로 돌아가 거울 앞에서 있는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고 싶습니다. ☹

## 만나고 싶었습니다

‘한국여성태권도연맹’ 전무이사  
임신자

◎ interviewee\_ 한국여성태권도연맹 전무이사 임신자  
◎ interviewer\_ 활동가 오매



“ 이번호 나눔터가 찾아간 곳은 한국여성태권도연맹. 3년 전 여성 관장님들을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강의를 하면서 연맹과 상담소는 처음 만났습니다. 상담소가 하고 있던 여성주의 자기방어훈련의 내용과 의미에 크게 반가워 하셨죠. 지금은 자기방어프로그램에 함께 하는 연맹 소속 사범님도 많아졌고 올해 초엔 부족한 재정을 쪼개 ‘으랏차차 청소년을 위한 호신가이드북’ 재발행에 후원해주시기도 했습니다. 살아있는 여성스포츠 지도자의 바이블로 불리는 임신자 전무이사님과 의 가슴 훈훈한 인터뷰, 함께 보실까요? ”

**Q** 부족한 예산을 쪼개서 ‘으랏차차 청소년을 위한 호신가이드북(2004, 한국성폭력상담소 초판 발간)’ 재발행을 후원해 주셨더라고요 ^^

**A** 우리 연맹이 여성을 대변하고 여성을 위해 존재하는 곳인데, 한국성폭력상담소도 여성을 위해 움직이는 단체죠? 같은 여성으로서 넉넉하지 않은 살림을 살아가고 있지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기꺼이 해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상담소는 특별히 피해생존자를 위한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잖아요. 저는 여자들이 사회 속에서 살면서 자신감을 더 많이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능글능글하게, 때로는 단호하게. 어렵지만 마음의 여유가 필요한데요, 사실 하나만 알고 그 속에 빠져 살기가 쉬워요. 운동은 갖춰 있던 자아를 끄집어내는 과정입니다. 운동을 하다보면 숨이 차올라 까딱까딱 넘어갈 때까지 뛰는데, 그런 힘든 훈련을 경험하다보면 웬만한 것에는 대범해지는 게 몸에 배죠. 사람들 앞에서 적극적인 몸이 되고요.



**Q** 최초의 세계선수권 2연패, 실업팀 최초 여자감독. 경력에서도 보여지지만 여자 선수, 사범들이 끄는 진짜 존경하는 지도자라는 점이 특별해요.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버려한 사건들은 정말 유명한데요.

**A** 저도 몰랐는데 제가 최초인 게 많았더라고요. 책임감이 굉장히 무겁고 더 열심히 살아야 될 것 같고 더 소신을 가져야 할 것 같고……. 더 많은 훌륭한 여성 지도자들이 나오도록 돕는 것도 제 숙제예요. 훌륭한 여자선수들이 정말 많습니다. 저는 남자 감독들과는 다르게 선수들의 마음을 잘 알고, 심리적으로 섬세하게 지지하기 때문에 심한 부담이 있는 선수생활에서 힘을 많이 얻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Q** 대한태권도협회 최초 여자이사, 국가대표 출신 최초 여성 태권도학과 교수이기도 한데, 남성중심적인 조직에서 활동하시는 느낌은 어떠세요?

**A** 가령 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게 되어도, 자신이 하는 게 성폭력일 수 있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많은 남자들이 보이지 않는 교육에 의해서 묵시적으로, 몸에 배어있는 습관에 의해서 행동하죠. 그게 무슨 성폭력이나? 이쁘면 좋은 거고, 친절하게 대해준 것이지, 그렇게 살벌하게 살아야겠어? 라는 게 대부분의 인식입니다.

최근에 스포츠 선수 성폭력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데, 상설 신고센터가 만들어졌을 거예요. 그러나 항상 관건은 실질적으로 시행되느냐 여부예요. 제도만 만들면 뭐합니까. 16개 시도 체육회 산하

전 종목들이 모이는 기회에 지도자 교육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고, 전국체전, 소년체전 등 모두가 모이는 기회에 지속적으로 홍보해야 합니다. 체육계 차원에서 후속 체크하고, 실시하지 않으면 예산편성에서 불이익 주기 등을 해서 강제해야죠. 드러나야 할 문제는 드러나야 성과인 건데 그런 생각이 아직 많이 부족하고 아쉽습니다.

**Q** 말씀하신 선수인권 문제는 성폭력 뿐 아니라 다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선수이셨을 뿐 아니라 선수와 교감하는 지도자로서, 운동선수가 꿈을 가진 한 인간으로서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A** 간단하게 단편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문제예요. 운동선수들과 지도자 관계는 강압적인 면이 필요한 게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정책

이 엘리트를 양성하는 스포츠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나라처럼 생활체육이 활성화되어 있고 그 속에서 엘리트 선수도 배출되고 그런 여건이 아닙니다. 순수 엘리트만 집중 육성하다보니 단기간에 선수를 만들고 대학을 보내기 위해 코치 감독들이 욕심을 내지요. 성적인 모욕감도 감수해야 할 만큼 강압적이게 되고, 프로팀에서도 그 정도인데 중고등학교 선수들은 불이익 자체도 모르는 형편입니다.

구조적인 변화도 중요하고, 선수들도 문제의식을 갖게 되기를 바라요. 자기 사고력을 가지고 반성하고 찾고 대안을 발견하려는 노력이 필요한데, 지금의 교육은 학생이자 선수인 사람들에게 비판의식을 키워주는 교육이 거의 없죠. 운동을 방과 후 수업으로 전환하는 시도도 매우 좋다고 봅니다. 공부는 자아를 계발하고 의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스스로 자신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주잖아요. 현실 속에서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말이지요.

**Q** 여성태권도연맹에서 여는 대회는 심판에서 기록까지 모든 것을 여성들의 힘으로 만드는 대회라는 면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 기억납니다. 마지막으로 여성태권도연맹, 앞으로의 목표나 계획은 어떠신지 궁금해요.

**A** 여성들만의 조직, 연맹이 모든 스포츠 종목을 통틀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여성태권도연맹은 만들어진 지 8년이 되었고, 기틀이 잡혀있지만 앞으로 도약을 해야겠지요. 사회활동을 더 많이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스포츠 선수 성폭력 인권 문제가 불거질 때도 여성연맹이 상세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별로 요청은 안 오더라구요. 성폭력 문제나 여성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좋은 생각을 사회와 연관시켜 봉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면 좋겠어요. 여성 스포츠인 선배와 후배들, 그리고 다른 나라의 조직들과도 네트워킹하는 과제도 있구요. 무엇보다 여성들의 연맹에서 스스로 성장하고, 조직도 성장하게 할 차세대들이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

[편집자주] 여성태권도연맹의 힘찬 기운이 전국 방방곡곡의 태권도장에서 여성들을 위한 멋진 프로그램으로, 상담소와 연계한 자기방어훈련의 다양한 변용으로 펼쳐지길 바랍니다. 인터뷰에 응해주신 임신자 전무이사님,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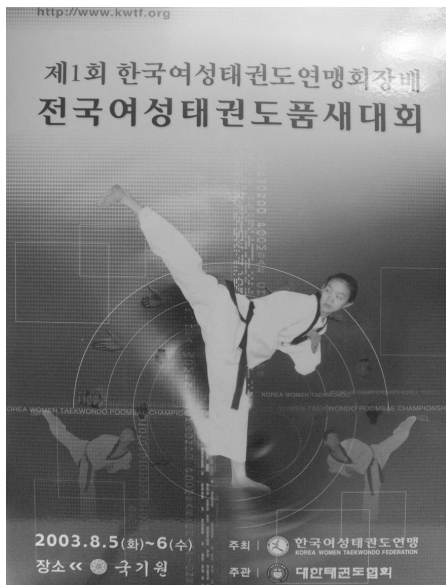
**▶ 한국여성태권도연맹이 궁금하시다면?**

<http://163.180.107.204/kwtf/main.asp>

**▶ 으랏차차 청소년을 위한 호신가이드북 재발행을 위한 온라인 모금은?**

<http://happylog.naver.com/ksvrc>

entertainment



만나고 싶었습니다. 한국여성태권도연맹 전무이사 임신자



### 소모임 생각

'소모임 생각'은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소모임들이 돌아가며 그간의 만남을 통해 길어낸 생각들을 풀어내는 꼭지입니다. 2009년 나눔터에서는 「여성소설읽기 모임」에서 고정칼럼을 연재합니다.

나눔터  
entertainment

### 별거 아니지만 내가 아는 주문 한 가지

여느 때와는 달리 책을 넘기는 순간순간, 어쩐지 무척이나 긴장이 되었다. 손에 힘이 빠져 책을 떨어뜨리질 않나, 숨이 가빠오질 않나, 얼굴을 돌리고 책과 내외하질 않나, 그것 참. 가끔은 그런 책을 만나게 되는 것이다. 자꾸만 숨을 고르며 한 글자 한 글자를 새기듯이 읽게 되는 책.

이 소설은 거식증, 약물중독, 자해 등 다양한 특징을 지닌 십대 소녀들이 모인 요양원에서 주인공 캘리가 겪는 마음의 변화를 담담히 그려낸다. 캘리를 이곳에 오게 만든 것은 날카로운 것으로 몸을 긁는 자해와 아무것도 말하려 하지 않는 자발적 실어증. 아무도 그녀를 책망하지 않는데도 소녀는 마음속 깊이 '모든 게 내 잘못이야!'라며 괴로워하고 또 괴로워한다. 왜 여리고 약한 사람들일수록 자기 탓을 하게 되는지. 다른 방법을 알지 못하므로 나는 중얼중얼 주문을 외운다. 네. 잘. 못. 이. 아. 니. 야. 이 말이 그녀에게 달아서 강력한 마법의 힘을 발휘하기를. 네 잘못이 아니야. 응, 그래, 네 잘못이 아니야.

### 내가 만약 힘들 때면 내가 친구가 될게

“제발 부탁인데 네 몸을 아프게 하지는 마.”  
시드니가 한숨을 내쉬며 말한다. 갑자기 뜨거운 눈물이 눈가를 자극한다.  
그러나 나는 울지 않는다. (『컷』, p.74)

마약 이슈를 가진 시드니와 티파니, 거식증에 걸린 타라와 베카, 폭식증에 걸린 데비, 캘리처럼 자해 이슈를 가진 아만다 등 저마다의 과제를 품은 또래 게스트들과 지내며 점차 마음의 문을 여는 캘리. '정상'이라는 선 밖의 시선으로 보면 병들고 이상한 아이들일 뿐이지만, 사실 그녀들은 서로를 이해하고 연민하며 지켜주려는 지나치게 '착한' 아이들일 뿐이다. 소설은 캘리의 1인칭 시점으로 흘러가지만 내 마음은 피곤할 만큼 여기저기로 튄다. 캘리의 마음으로 들어가 '어? 도대체 내가 왜 이러지?'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상담자가 되어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소녀를 지켜보기도 하고, 캘리의 엄마가 되어 찌들고 지친 몸으로 애써 캘리를 챙겨보기도 한다. 그 누구에게도 쉬운 삶은 없다는 깨달음 때문에 나는 조금 더 슬퍼졌다. 그러나 시드니 같은 친구들의 마음속에 들어갔을 때가 제일 좋았던 이유는 단순하다. 그녀들에겐 이제 '동지'가 생겼으니까. 어둡고 험한 길을 걸어도 친구가 있으면 외롭지 않으니까. 꼭 같은 이유로 그리도 많은 사람들이 상담소를 찾아오지 않았던가.

## 순간순간 찾아오는 불완전한 치유의 즐거움 패트리샤 맥코믹, 『컷』

◎ 소모임 <여성주의 소설읽기> 회원 당고



### 그 상처까지도 나인 거야

이야기는 빠르게 흘러 소녀는 결국 '안전하게' 치유되리라는 암시로 끝이 난다.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도 자못 마음이 불편해지는 건 왜일까. 자해 충동을 가진 사람들에게 '치유'란 무엇일까. 불안하고 우울한 사람들에게 치유란 무엇일까. 성폭력 생존자들에게 치유란 무엇일까. '아무렇지도 않게 말짱해지는 것'이 치유일까.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정상'의 규칙에 맞추어 사는 것이 '완전한' 치유일까.

언제까지고 술을 마시는 않는 것만이 알코올 중독자의 치유가 아니라. 어떤 때는 술을 마시지만 어떤 때는 술을 마시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도 치유가 아닐까. 늘 평온한 기분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조증이나 우울의 미묘한 선을 재주껏 넘나드는 것이 치유의 목표가 될 수도 있다. 스스로가 어떻게 되어버릴지도 모른다는 공포와 자신을 다잡으려는 안간힘 사이에서 아슬아슬함을 느끼는 것은 누구나 마찬가지다. 지구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정상인'들도 아마 그럴걸?

“그런데 저는 이 상처들을 없애고 싶지 않을지도 몰라요.”

한참 뒤에 내가 말을 꺼낸다.

당신이 고개를 끄덕인다.

“이것도 제 자신을 말해주는 일부니까요.”

“그래, 맞아. 그렇지.” (『컷』, p.207)

완전히 치유되는 것, 아무렇지도 않아지는 것, 있었던 일이 없었던 일처럼 되는 것,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아도 괜찮다. 우리는 계속 어딘가 아프고 힘들고 괴로울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완전한 치유가 아니라고 해서, 여전히 두렵고 불안하다고 해서, 결코 우리가 순간순간 맞이하는 치유의 감동이 덜해지는 것은 아니다. 캘리의 말처럼 빨간 자국으로 남은 생채기조차도 나의 일부다. 우리는 매 순간 상처받고 매 순간 기적처럼 치유된다. 내일이 두렵더라도 오늘의 행복을 선택할 수 있다면, 오늘 우울했더라도 내일은 다른 기분일 거라고 믿을 수 있다면, 그리 나쁘지 않다. 나도, 당신도, 썩 괜찮은 거라고 말해주고 싶다. ☺

소모임 생각 \_ 패트리샤 맥코믹 『컷』





회원칼럼

‘세상 속  
사람들과 만나다’

www.hijracat.com

히즈라네 고양이

맛과 향, 음악과 문화가 있는... 핸드드립커피 수제초콜릿 글러바인

◎ 본 상담소 前 활동가/후원회원 원사



♥ 원사

여성운동밖에 모르던 인간이 세상 속으로 들어와, 익숙하지 않은 일과 낯선 사람들 속에서 좌충우돌 시행착오를 겪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작은 실천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날을 꿈꾸며, 구로의 ‘히즈라네 고양이’ 친장^^

구로에 커피전문점을 오픈하여 사람들을 만나지 7개월이 지났다. 정말 시간 한번 빠르다. 상담소를 그만두고 거의 2년이 되어가는 중이구나! 아직도 간간 나오는 활동가 같은 행동에 놀라며 스스로 자제를 호소하지만, 아마도 그 시간의 간극만큼 내 삶과 시각은 무척이나 달라져 있을 거다.

카페를 운영하기 시작하면서 스스로 다짐한 것 중 하나가 “내 생각을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추자”였다. 너무 오랫동안 페미니스트 여성들만 만나왔기에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생활태도를 알아갈 필요가 있고, 더 관심을 쏟아야 했다. 그래야 좀 더 그들의 욕구에 맞게 서비스를 할 수 있고, 그래야만 운영의 안정화와 더불어 내가 목표한 것들을 이뤄낼 수 있으니까 말이다.

그러나 예상했던 것보다, 커피가 좋아서 혹은 이곳 분위기를 좋아해서 오는 사람들은 내 친구들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 같다. 어쩌면 ‘일반 사람들’이라고 구분한 그들을 너무 오해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이들 중에는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작은 실천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 보는 내가 흐뭇할 때가 있다. 일회용 컵을 쓰지 않기 위해 자신의 컵을 들고 와서 커피를 담아달라고 하는 사람, 한 번 쓰고도 재활용이 가능한 컵홀더를 여러 개 모아서 다시 건네주는 사람들도 있다. 입으로만 떠들며, 게으름을 핑계 삼아 일회용을 쓰는 내 자신이 부끄러울 때다. 또한 자기의 컵을 여러 사람들과 함께 나눌 줄 아는 사람들도 많다. 그래서 어떤 이는 음악 CD를, 어떤 이는 건강식품을, 어떤 이는 맛있는 향신료를, 어떤 이는 멋진 책을, 어떤 이는 자신이 아끼던 물건을 선뜻 내주며, 이곳을 이용하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신경써준다.

7개월을 지내오며, 나는 세상 사람들과 소통하는 방식을 알아가고 있는 중이다. 일반 직장인들이 갖는 고민과 생활을 모두 알 수는 없지만, 조금씩 그들의 이야기가 익숙해져가고 있다.

이제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애초에 생각한 좀 더 운동성 있는 실천을 세상 속에서 조금씩 하고 싶다. 즉, 커피 관련 외래어들을 누구나 알기 쉽게 우리 언어로 만들어 내는 일, 나눔이 익숙해지는 삶의 예들을 알려내는 일, 일상의 작은 실천으로 환경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널리 알려나가는 일, 자신과 다름을 인정할 수 있는 여유를 공유하는 일 등을 말이다. 이렇게 내게 장이 마련되었다는 것, 그것에 감동하며 멋진 일상운동을 한다는 것, 맞다! 이 글을 쓰면서 나는 복 많은 인간임을 또 한 번 실감한다. 하하하. 아자 아자 아자! ^^ ☺



사람만이 희망이다

◎ 본 상담소 소장 이윤상

쌀쌀한 초봄의 어느 수요일. 멀리 분당경찰서까지 가서 故장자연 님 사건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촉구 기자회견을 마치고 돌아온 활동가들을 반갑게 맞는 목소리. “선생님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많이 추웠죠? 얼른 와서 점심 드세요.” 수요일 책임상담원 선생님이시다. 기자회견 때문에

점심을 준비하지 못한 수요일 점심당번 활동가를 대신해서 점심 밥상을 차려놓고 기다리셨단다. 적은 월급으로 생활하는 활동가들이 돈을 절약하기 위해 점심을 사무실에서 지어먹는 것은 이미 익숙한 풍경이고, 사무실에서 함께 활동하는 상담원 선생님들도 어느새 함께 밥을 지어서 나누어 먹는 점심 친구로 자리 잡았다. 집에서 함께 먹을 반찬을 만들어서 싸가지고 오시는 분, 날씨가 우중충하다며 부침개 재료를 준비해 와서 즉석 부침개를 부쳐내는 분, 나누어 먹으며 쌀을 기부해주시는 분까지 점심 밥상을 둘러싼 훈훈한 이야기는 끝이 없다.

이렇게 함께 나누는 밥상에서 오가는 이야기도 여러 가지다. 드라마 이야기, 상담소 블로그에 새로 올라온 글 이야기, 재판동행 다녀온 이야기 등. 이 중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인기 주제는 MB행정부에서 벌어지는 각종 기상천외한 일들과 이에 따라 깊어지는 사무국의 고민이다.

“선생님, 올해 심화교육은 참가비를 많이 올려야 할 것 같아요. 상담도 자원활동으로 하시는데 교육비까지 올려야 하다니 정말 너무 속상하고 화나요.”

“올해 달빛시위(밤길되찾기캠페인의 별칭)는 돈 안들이고 해야 하는데 뭘 좋은 아이디어 없을까요?”

“내담자들이 프로그램 참 좋다고 하던데 올해도 그 프로그램 진행하는 건가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예산 다시 검토해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든 꼭 진행하도록 해봐야죠.”

서울시, 여성부,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정부기관에서 발주한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상담소가 진행해온 사업은 밤길되찾기캠페인, 상담원 심화교육, 여성주의 자기방어 프로그램 등 여러 가지다. 각 공모사업의 운영목적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우리사회의 인권감수성을 높이고 소수자의 권리를 확보하는 등 공익에 기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 이미 여러 해 사업을 수행했고 그 성과 또한 훌륭하여 우수사례로 뽑히기도 했던 우리 상담소의 응모사업이 올해는 죄다 쓴 잔을 마셨다. 광우병국민대책위에 연명한 1842개 단체를 ‘불법폭력 집회’에 참여한 단체로 규정하고 정부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정부 방침이 일파만파 영향을 미친 결과다.

우리들의 답답한 심정, 화나는 심정이야 이루 다 말할 수가 없지만, 그래도 하루가 멀다 하고 벌어지는 상황에 매번 화를 낼 수만도 없고, 비판적 목소리를 내는 NGO에 대해서는 이미 현 정권이 재갈물리기 정책을 전면으로 내세우고 있으니, 이제는 시민과 단체들의 현명한 대응과 대책이 필요할 때인 듯싶다.

상담소 회원님께서 상담소 기부금을 마련하기 위해 집 앞마당에서 기금마련 하우스파티를 연 이야기, 첫 월급을 타면 꼭 하고 싶었다며 평생후원 회비를 내 주신 회원님의 소식, 자신의 퇴임식에 오는 분들께 선물 대신 상담소 후원금을 요청하여 기부금을 모아 보내주신 회원님의 감동 사연에 사무실의 열기는 어느 때보다도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사람만이 희망이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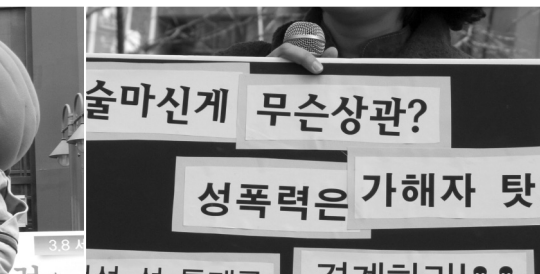
entertainment

사람만이 희망이다



# 뭔데! 상담소

보호, 나에게 필요한 힘! 개트리고



### 3.8 세계여성의 날 후기

3월 8일은 101주년 세계여성의 날이었습니다. 상담소는 이날, 반차별공동행동에서 진행한 <여성, 폭력을 이야기하는 101가지 방법>과 한국여성대회 조직위원회에서 준비한 <3·8세계 여성의 날, "여성이 만들어오: 빈곤과 폭력 없는 세상">에 참여하였습니다. 반차별공동행동의 행사에서 연세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되살아나는 여성 성 통제에 대한 음모를 폭로하는 촛군을 성황리에 마친 후, 한국여성대회 조직위원회의 기념식에 참여, 청계천과 시청 주변을 행진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마음도 더 따뜻하고, 한국사회의 여성 인권 지수도 더 향상되기를 바랍니다.

### 3.10 이사회

상담소의 또 다른 주춧돌, 이사님들과 3월 이사회를 잘 마쳤습니다. 홍순기, 김삼화, 배삼희, 이지선, 정대성, 최보원이사님과 함께 한 이날은 상담소 1~2월 활동을 점검하고, 2009년 모금사업에 대한 공유와 기금마련사업에 대한 아이디어가 열정적으로 오가는 자리였습니다.

### 3.30 KSVRC 3월 월례포럼

3월 30일, 합정동 모 카페에서 KSVRC 3월 월례포럼이 열렸습니다. 강의를 나눠주신 문은 인 권연구소 창의 책임연구원이자 '닥터라, 세계화'의 저자 영기호 님이셨습니다. 문화학을 공부하던 사람이 어떻게 전세계를 누비고 다니며 친구들을 만나고 세계의 저항행동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이토록 생생한 책을 쓰게 된 걸까요?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4.8 긴급확대지원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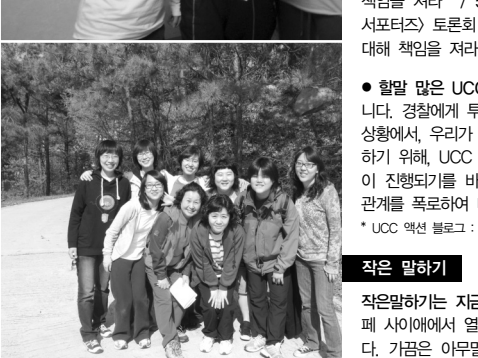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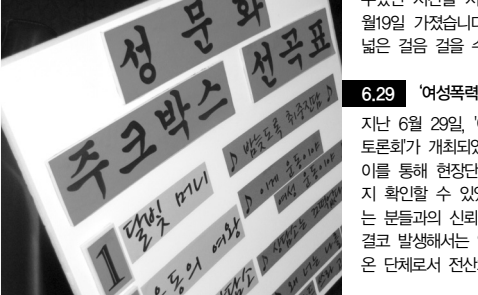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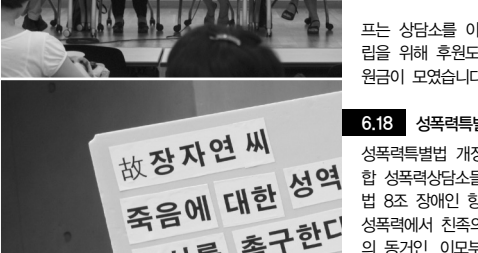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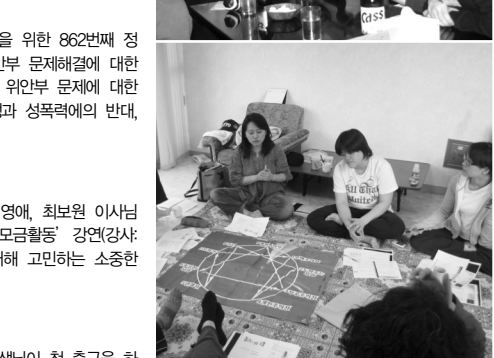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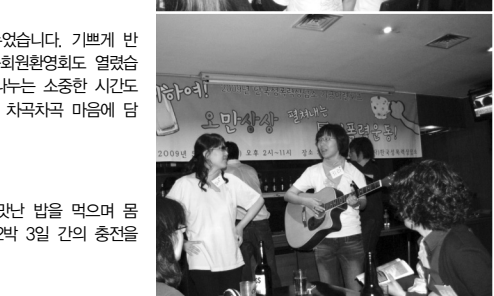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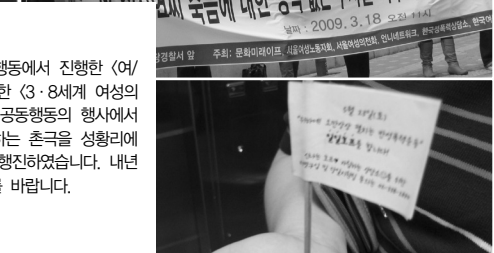
4월 8일에는 긴급확대지원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자리에는 자문위원 9명과 활동가들이 함께 자리하여 최근 발생하고 있는 현안을 중심으로 토론회를 진행하였습니다. (1)지난 2월 행안부가 비영리민간단체공익활동 지원 대상에서 '불법/폭력시위 참가단체'를 제외한다는 행안부의 지침 발표 이후 불어닥친 급작스런 정부 프로젝트 지원사업의 방향 전환으로 우리 상담소가 받는 재정적 압박과 (2)전자정부화 시책에 따라 우리 상담소와 같은 여성폭력피해지원단체까지 관련 정보를 전산시스템에 입력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하는 정보인권침해 문제에 관하여 집중 토론했고 향후 대응방안에 관하여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 4.13 18주년 생일맞이 사랑의 떡차 & 신규회원헌영회

상담소의 18살 생일을 맞아 마포구의 회원님들, 단체들과 사랑의 떡을 나누었습니다. 기쁘게 반겨주시는 회원님들을 보니 활동가들 얼굴도 밝고 웃음이 가득하네요. 이날 저녁에는 신규회원헌영회도 열렸습니다. 맛있는 다과를 나누며 서로 반갑게 인사도 하고, 상담소와의 약속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도 가졌습니다. 회원님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사랑을 차곡차곡 마음에 담아 알찬 상담소 되도록 하겠습니다.

### 4.16~18 상담소 상근자워크샵

2009년 상근자워크샵을 다녀왔습니다! 충남 병천의 디아코니아저택에서 멋진 밥을 먹으며 몸과 마음에 휴식을 주고, 상담소에 대한 많은 고민도 나누고 돌아왔습니다. 2박 3일 간의 충전을 통해 활동가들도 신명나게 활동할 에너지를 한껏 얻었습니다.



### 6.18 성폭력특별법, 형법 개정안 발의 준비

성폭력특별법 개정과 형법 개정안 마련을 위해 한국여성민우회, 장애여성공감, 한국여성성정인연할 성폭력상담소들과 함께 광정숙 의원실을 방문했습니다. 2007년 대법원 판례를 반영하여 특별법 8조 장애인 항가불능 조항 문구를 대안적으로 개정하려고 합니다. 또한 7조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에서 친족의 범위를 4촌 이내 친척, 2촌이내 인척에서 4촌 이내 인척까지 확장하여, 조모의 동거인, 이모부, 고모부에 의한 성폭력도 친족 성폭력으로 인정되도록 하려고 합니다. 형법에서는 친고죄를 비친고죄화하고, 강간의 개념을 유사성교행위까지로 확장하여, 강간의 객체를 부녀에서 사람으로 넓히는 개정이 꼭 이루어져야 합니다.

### 6.19 상반기평가회의

바쁜 일정을 속에서 한숨을 고르고 평가의 시간을 충분히 갖는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매년 여름이 되면 사업도 바쁘게 돌아가고, 특히 올해 여름은 시국도 수상했는데, 그래도 연초에 맡아 두었던 시간을 지켜 모든 팀들이 초발 평가회의를 하고, 상반기 전체 상근활동가 평가회의를 6월19일 가졌습니다. 7월 초에는 2010년을 준비하는 계획회의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좀 더 깊고 넓은 걸음 걸을 수 있는 상담소, 잘 평가하고 열심히 계획하겠습니다.

### 6.29 '여성폭력피해지원단체의 국가복지정보시스템 사용'에 관한 토론회

지난 6월 29일, '여성폭력피해지원단체의 국가복지정보시스템 사용 문제점과 대안 검토'를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본 토론회에서는 정부의 전산화 시책의 문제점과 대안을 논의하였으며, 이를 통해 현장단체와 정부입장의 차이, 그리고 이 차이를 좁히기 위해서 어떤 토론회가 필요한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부의 행정중심의 관리 감독을 위한 시책 때문에 상담소에 찾아오시는 분들과의 신뢰가 무너지고 피해자 인권 확보를 위한 활동 자체를 수행하기 어렵게 하는 일은 결코 발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상담소는 오랜 시간 여성인권을 지키기 위한 활동을 펼쳐온 단체로서 전산화 시책이 갖는 인권침해 문제에도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 ● 사건 관련 활동 - 故 정지연씨의 죽음 이후 우리 상담소는 분당경찰서 앞, 조선일보 앞, 청와대 앞에서 수 차례 기자회견을 열어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성연예인 인권지원 서포터즈' 선언식을 개최하였으며 SOS 센터를 개설하여 여성연예인 상담대, 상담 예약 등에 대한 상담과 법적 지원을 시작합니다. 경찰에 대한 수사촉구는 여전히 유요한 상황이며 우리 상담소는 故정지연씨의 죽음의 원인을 규명하고 여성연예인의 접대성 성매매를 강요하는 권력 고리를 끊어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 3.18 (분당경찰서 앞) 경찰의 성역 없는 수사 촉구 기자회견 / 3.30 (분당 경찰서)의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하는 의견서 발송 / 4.8 (조선일보 앞) 故정지연씨 죽음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 촉구 기자회견 / 4.20 故정지연씨 사건 관련 적반하장식 고소남발 조선일보 규탄 기자회견 / 4.24 (논평) 경기도 경찰청은 무능력함을 인정하고, 故정지연씨 죽음의 진실을 밝히지 못한 것에 대해 책임을 져라 / 5.11 (액션) 할말 많은 UCC 행동단) 활동 개시 / 5.22 (여성연예인 인권지원 서포터즈) 토론회 및 선언식 / 6.25 (논평) 경찰은 故정지연씨 죽음의 진실을 밝히지 못한 것에 대해 책임을 져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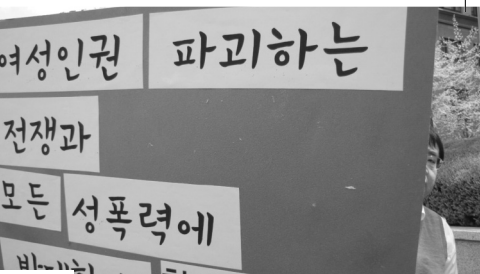
### ● 할말 많은 UCC 행동단 - 故 정지연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 벌써 몇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경찰에게 투명화와 정의를 기대할 수 없고, 언론에게 언론을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운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하고 싶은 말들은 참 많습니다. 그 많은 말들이 이 세상에서 더 많이 소통되게 하기 위해, UCC 행동이라는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故 정지연 씨의 죽음에 대한 수사가 성역 없이 진행되기를 바라는 마음, 여성연예인을 죽음으로 내모는 연예산업의 비리와 정재계와의 유착 관계를 폭로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모았습니다.

\* UCC 액션 블로그: [http://blog.jirbo.net/ucc\\_action](http://blog.jirbo.net/ucc_action)

### 작은 말하기

작은말하기는 지금도 계속된다. \_ 어김없이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저녁 7시에 작은말하기가 카페 사이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각자의 경험 한가직을 가지고, 이 경험에 대해 말하고 듣습니다. 가끔은 아무말 하고 싶지 않아 듣기만 하고, 가끔은 어느 누구보다 먼저 말하고 싶습니다. 내 말이 다 맞다고 해주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내 말이 다 틀렸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4월, 5월, 6월의 작은말하기를 보냈습니다. 언제나 열려있고, 옹기 있는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말일까요? 궁금하시다면 [cafe.daum.net/small-but-big-talk](http://cafe.daum.net/small-but-big-talk)에 담긴 이야기들을 들어보세요.

\* 편만한 작은말하기를 위해 참여인원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꼭 사전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 “위하여! 오만상상 펼쳐내는 반성폭력 운동!”

- 2009년 기금마련 일일호프 리뷰

◎ 일일호프 기획팀 최바른

이번 리뷰는 직장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상담소에서 2달 동안 일일호프 기획팀으로 활동한 최바른 학생이 작성해주셨습니다.



2009년 기금마련일일호프의 타이틀인 ‘위하여! 오만상상 펼쳐내는 반성폭력운동!’은 상담소의 반성폭력운동을 기금마련과 함께 해보자는 취지로 이어졌습니다. 호프의 분홍색 메인 이미지도 봄의 상큼하고 따뜻한 날씨에 아주 잘 어울립니다. 이렇게 2009년의 기금마련호프 준비도 활기차게 시작되었습니다.

호프 당일, 우리 상담소의 상근활동가들, 그리고 자원활동가들은 호프 장소 내외부 곳곳에 회원가입서, 상담소에 대한 여러 가지 브로셔, 판넬 등을 붙여, 오시는 분들에게 상담소가 더욱 친근하게 다가가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당일 테이블로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위해 막바지 연습을 열심히 하는 상근활동가들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호프를 개시하자 이른 시간부터 몇몇 분들이 와주셔서 즐겁게 즐기시고, 음식도 맛있게 드셨습니다. 자원활동가들도 아직 손님이 별로 없어서인지 함께 이야기도 나누었던 평화로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녁시간이 되면서 손님들은 점점 많아졌고 행사

장은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밖에서 기다리시게 된 분들께 여러 차례 양해 말씀을 드려야 해서 너무 죄송했어요. 그렇지만 우리 상담소를 위해 와주신 것이니 한편으로는 감사하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상근활동가들은 테이블별 프로그램을 통해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호프를 찾아주신 분들을 즐겁게 해드렸습니다! 깜찍한 의상이 돋보였던 명탐정 와플, 예술적인 후원함인 눈에 띄었던 신통방통 손금도사, 깜찍한 울동의 성문화 주크박스, 활력 넘치는 이구동성 퀴즈까지! 모두 감탄이 절로 나오는 재미있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리고 호프를 총괄하느라 프로그램에는 참여하지 못했지만 모든 것에 신경써 준 지선 활동가까지! 모두들 즐거운 호프 만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번 2009년 기금마련 호프를 위해 와주신 여러분들, 그리고 비록 오시지는 못했지만 마음은 호프에 와 계셨던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랑이 아니었으면 모두가 한 자리에 모이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호프에서 보여주신 여러분의 후원과 응원, 그리고 사랑은 우리 상담소 식구들의 활기찬 원동력이 된다는 것, 알고 계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모두 한자리에서 뵙기를 바랄게요! ☺



# 2009년 달빛시위를 기대하며

◎ 제6회 달빛시위 기획단 이현정



달빛시위는 2004년 ‘유영철 연쇄 살인사건’ 이후 여성단체들을 시작으로 여성혐오 범죄와 성폭력에 반대하여 여성들 스스로 중심들의 권리를 주장하고 요구하는 행위로 시작되었습니다. 외국에서는 1973년 독일에서 연쇄 성폭력 사건에 대한 대응 거리 행진 이후, 벨기에, 영국, 미국, 대만, 호주 등지에서 반성폭력 이슈에 뜻을 같이 하는 조직이 확산, 거리행진의 형태로 이어져오고 있다고 합니다.

2008년 달빛시위는 개인적으로 큰 수확이었습니다. 많이 느끼고 공감하고 생각하며 결의를 다질 수 있었죠. 무대행사에서는 반성폭력 성명서 낭독 및 여성단체들이 준비한 퍼포먼스, 밴드 공연, 여성주의 자기방어 훈련 등이 있었고, 몸소 따라하고 참여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무대 행사 후에는 반성폭력 이슈를 지지하는 각종 단체와 개인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인사동을 시작으로 명동성당까지 거리 행진을 했습니다. 곳곳에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야한 옷이 무슨 상관! 성폭력은 가해자 탓!’이라 외치는 언니들이 보였는데, 온몸으로 자신의 권리를 표현하는 모습이 신선했고 ‘야한 옷이 성폭력을 조장한다’는 성폭력 피해자 유발론과 성폭력에 대한 통념에 돌을 던지는 짜릿한 순간이었습니다.

어느덧 6회를 맞이하는 달빛시위는 7월 17일(금) 저녁, 청계광장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상반기만 해도 ‘경기서남부지역 연쇄 성폭력 살인사건’, ‘故장자연



사건’ 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분노와 공포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번 달빛시위에서는 올해 있었던 일련의 사건들이 우리의 일상에 만연해 있는 성폭력과 가부장적 성문화, 성별 규범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음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여성들의 일상을 통제하고 공포를 조장하는 성폭력에 대한 통념과 편견에 대해 다시 한 번 강력히 문제제기하는 데 중점을 두려고 합니다.

이번 달빛시위는 “달빛아래 여성들, 어둠의 봉인을 해제하다!”라는 이름으로 개최됩니다. 이는 여성들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여성들을 위협하고 움아매는 봉인들을 해제한다는 의미입니다. ‘어둠의 봉인’이란 성폭력에 대한 편견과 통념, 침묵과 방관, 무관심으로 여성들의 밤길과 일상을 통제하는 가부장적 성문화와 성별규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달빛시위 기획단은 여성들의 주장과 요구의 메시지를 잘 전달하면서도 재미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설레는 마음으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빛시위가 그동안 쌓아두었던 이야기와 분노를 표출하고 우리들의 권리를 주장·결의하는 ‘살풀이’의 공간이자 사회를 변화시키는 움직임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에 공감하고 동의하시는 많은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며!

한여름 밤의 여성들의 외침이여 영원하라!! 팍팍~~~!! ☺

제6회 달빛시위  
“달빛 아래 여성들, 어둠의 봉인을 해제하다!”

일시: 2009년 7월 17일(금) 오후 6시 30분  
장소: 청계광장  
드레스코드: 보라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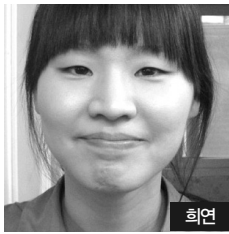
미초

반갑습니다. 재정활동가 미초입니다. 새로운 만남과 기대 속에 어느새 3개월의 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회계에 관한 지식은 많이 부족하지만, 그저 이곳이 좋고, 이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좋아 기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배워가면서 성실하게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마리

열린터 재정을 맡고 있는 마리입니다. 월요일마다 대청소로 가쁘게 일주일을 시작하고, 화요일은 머리를 맞대며 진지한 상근자회의를. 부지런히 움직이고, 계획하고, 서로가 만드는 정성어린 점심과 출퇴근길에 감상하는 멋진 장미 텀블. 이렇게 반복되는 하루하루가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빈 그릇엔 담을 것이 많다고 무지(?)에 당당해 보려하지만, 가벼운 변명인 듯 싶네요. 많이 알고, 배우고 싶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너무나 좋고, 멋진 분들이 많은 이곳에 온 것이 행운인 것 같아요.



희연

안녕하세요? 참여기획팀에 새로 온 재치가 넘치는 터널 같은 사람 희연입니다. 터널같이 모든 가는 길을 빠르게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두가 감동받을 수 있도록 참여기획팀 희연 노력할게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송미현

안녕하세요? 이번에 열린터 새식구가 된 미현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게 큰 임무를 맡겨 주시고 선배활동가들께서 따뜻하게 환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OT를 통해 원장으로서, 열린터 활동가로서 수행해야할 일들을 하나씩 익히면서 제가 과연 감당해 낼 수 있을까 걱정이 앞서지만, 처음 자원봉사를 시작했을 때의 순수했던 열정으로 제게 주어진 역할에 감사하면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날씨가 점점 더워지니 모두들 건강 챙기시고요.



송은주

열린터 원장님이셨던 오정희 선생님과 상담소의 재정을 담당하시던 송은주 선생님께서 활동을 마치셨습니다. 활동가들에게 밝은 웃음과 따스함을 전해주셨던 선생님들! 새로이 시작하는 삶, 가는 발걸음마다 행복과 축복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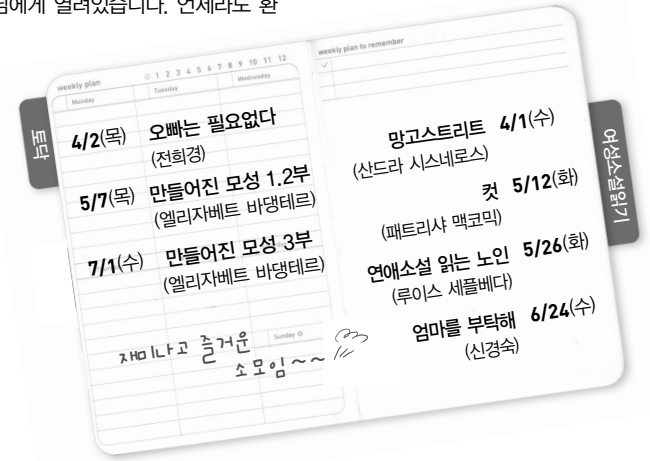
안식년과 출산. 육아휴직을 쓰고 상담소에 다시 돌아온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1년만을 약속하고 상담소 활동을 시작한 2008년 7월. 그로부터 벌써 1년이 지났다는 사실이 신기하게만 느껴집니다. 어떤 면에선 아쉽고, 어떤 면에선 새로운 만남과 활동을 기대하게 합니다. 서로가 바라는 세상을 이야기하며 후원금을 모으고, 그 후원금으로 세상을 움직일 열정을 모아가는 일은 저에게 큰 자양분이 되었습니다. 어디를 가셔든 반성폭력운동의 후원자, 참여자가 되고 싶습니다. 상담소 행사에서, 소소한 모임에서 또 얼굴 뵙겠습니다.

### [소모임 활동]

지금 활발하게 활동 중입니다. 현재 힘차게 굴러가고 있는 소모임들입니다. 회원님, 언제든 문 두드려 주세요~ (소모임 최근 소식은 상담소 홈페이지 [www.sisters.or.kr](http://www.sisters.or.kr) 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토닥소모임** : 여성/노동이라는 문제의식을 공유한 회원들이 모여 출발한 모임입니다. 4년째 지속적으로 움직이는 스타디모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성, 노동, 자본주의 관련한 커피를 읽고 발제하는 형식으로 모임이 진행되었고요, 앞으로 '여성' 주제 외에 '전쟁', '생존자', '모성' 등에 대한 질적 연구를 깊이 들여다 보고자 합니다. 토닥스타디는 항상 회원님에게 열려있습니다. 언제라도 환영하고요, 어서 어서 참여해주세요!

♥ **여성소셜읽기 모임** : 소셜 속에서 우리네 삶, 특이나 여성들,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자리입니다. 5년 가까이 지속적으로 회원님과 함께 하는 소모임이구요, 새로 오시는 회원님 언제나 환영합니다. 일상이 제대로 풀리지 않을 때, 내 안의 고민을 털어놓고, 소중한 것을 공유하고 싶을 때 소셜읽기 모임은 그야말로 회원님의 삶에 단비처럼 내려줄 것이라 믿어요. 책을 읽고 발걸음 가볍게 문을 두드려주세요~



정말 즐겁고 끈끈한 모임들이랍니다. 지금 이 글을 읽는 당신, 함께 하실래요?...

### [혼훈한 기부]

♥ 5월 2일, 정진옥 회원님께서 주변 지인, 가족들을 모시고 상담소 기금마련 하우스 파티를 개최해주셨습니다. 30여 분이 함께 하는 따뜻하고 의미 있는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기부금은 성폭력 없는 세상을 위해 소중하게 쓰겠습니다. 함께 하신 분들, 후원해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김화영 회원님이 5월 21일에 있었던 본인의 퇴임식에 참석해 주신 분들께 퇴임선물 대신 상담소 후원금을 요청하여 기부금을 모아주셨습니다. 퇴임식에 참석하신 분들이 뜻깊은 일이라며 흔쾌히 후원금을 내주셨다고 합니다. 김화영 회원님은 재정적으로 어려운 시기이지만 상담소가 지금까지 펼쳐온 활동을 계속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회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4월 13일, 상담소 개소 18주년 기념 잔치에 이미경 이사님을 비롯한 많은 회원님들이 떡 등 음식과 기부금을 보내주셨습니다. 상담소가 18년 넘도록 웃음꽃이 피는 이유, 바로 이런 잔잔한 후원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 아닐까요?

♥ 최영애 이사님이 열린터 식구들과 상담소 식구들을 위해 갈비와 사과를 보내주셨습니다. 덕분에 상담소 점심식탁은 얼마나 풍성하고 맛있었지요! 이사님, 감사합니다.

♥ 김하나 회원님이 상담소 (자원)활동가들의 간식, 커피, 차 등을 후원해주셨어요. 회원님의 소중한 기부로 활동가들의 입은 즐겁습니다.

♥ 이정환 회원님께서 첫 월급을 타면 꼭 평생후원회비를 내고 싶었다며 여기에 3장의 신규후원회원 가입서까지 건네주셨습니다. 주변 동료에게 상담소를 소개하면서 회원권유를 하셨다는데, 정말 감동입니다! 이렇게 가슴 뜨거워지는 경험, 저희는 그 경험으로 오늘도 열심히 뛰겠습니다.

♥ 2009년 2월부터 5월까지 김경아, 메사, 허순만, 김희창, 조혜영, 신현주, 차성안 회원님이 회비를 증액하셨습니다. 작은 돈이지만 상담소라면 더 소중하게 쓸 것 같다고 하시며 회비를 증액하신 그 마음, 잊지 않고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 서울문화사에서 근무하시는 들통 님께서 열린터에 학습만화책 20권을 보내주셨습니다.

♥ 열린터 가족들의 배움을 위해 애쓰시는 선생님들, 고맙습니다. 문구미정(수학, 과학, 멘토), 떠비(영어), 박소영(영어), 최정임(영어, 수학), 우완(멘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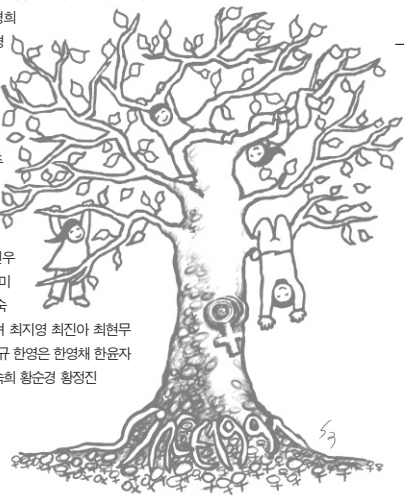
# 아낌없이 주는 나무

## 2009년 2월 19일부터 2009년 5월 28일까지 새로 오신 (후원)회원님을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

강선미 강희진 고은별 곽미정 김미랑 김병필 김석제 김선화 김아리 김은아 김은하 김재윤 김하나 김현 김현수 노귀연 노복미 노수희 류진봉 박경훈 박영래 박제영 박준숙 박현이 배동란 서영주 서예지 심난숙 안규연 안주리 양미초 오지영 오혜란 유호상 윤석남 윤인호 이김영란 이동규 이서지 이영택 이원홍 이준형 장하정 장호경 전정현 정대성 정윤아 제갈함선

## 2009년 2월부터 2009년 5월까지 후원해주신 분들입니다. 감사합니다.

강기림 강경식 강근정 강남식 강동화 강득록 강명숙 강명지 강미경 강보길 강선미 강수준 강영미 강영순 강영화 강인화 강지이 강형구 강혜숙 경선미 계경문 고계영 고금이 고미라 고보경 고재경 고정삼 고정삼 고희정 곽옥미 곽윤이 구민지 국경진 권경희 권구홍 권기욱 권소영 권오환 권요안 권주희 권해수 굴정영 김가희 김강자 김경선 김경아 김경진 김경태 김경훈 김광진 김규옥 김금선 김나연 김다미 김대숙 김도연 김동경 김동현 김두나 김들순 김매정 김명륜 김명숙 김미경 김미라 김미랑 김미숙 김미영 김미옥 김민규 김민정 김민환 김보연 김보화 김봉심 김삼미 김상호 김상희 김선태 김석제 김선경 김선미 김선민 김선애 김선주 김선희 김성자 김세종 김소명 김소연 김수민 김수진 김숙임 김순옥 김순자 김승규 김애라 김애란 김양지 김연정 김엘림 김연경 김연기 김연정 김연희 김영림 김영미 김영서 김영선 김영세 김영선 김영화 김영환 김옥주 김용란 김원식 김원정 김유진 김유진 김윤경 김윤화 김은경 김은영 김은정 김은주 김은형 김은희 김응진 김의창 김이미나 김인에 김일룡 김지경 김재아 김재원 김정민 김정화 김중숙 김중수 김중희 김주희 김준호 김지미 김지선 김지연 김지영 김지은 김지은 김지현 김지현 김지혜 김진선 김진호 김진희 김택한 김태섭 김택진 김하나 김하연 김하정 김학실 김한상 김한선혜 김해경 김현 김현정 김현란 김현숙 김현영 김현정 김현주 김형수 김혜경 김혜란 김혜련 김혜승 김혜영 김혜정 김혜정 김혜진 김효정 김홍숙 김효정 김희경 김희정 김희창 나길희 나영우 남길식 남우희 남정현 남현미 남현우 노경란 노길옥 노미선 노복미 노상숙 노선이 노수희 노재봉 노정주 도병옥 도상금 도정애 류란 류중현 류진봉 명가진 목소희 문경희 문기선 문미라 문미정 문현정 문영숙 박경희 박경숙 박금이 박명숙 박미경 박미라 박미선 박미숙 박미영 박미영 박미향 박미현 박민주 박병현 박보영 박상규 박상희 박상희 박사원 박선숙 박성주 박세정 박소라 박소림 박소연 박소영 박소은 박수연 박수현 박순복 박승일 박아름 박영 박영주 박유미 박은정 박은진 박정란 박정은 박중선 박주연 박준규 박준연 박지영 박지현 박진숙 박차로 박창경 박현배 박현순 박현주 박현희 박혜영 박혜진 박상희 배경희 배동란 배새롬 배은경 배자하 배정원 백명숙 백선희 백성길 백지선 백현 백계희 변순임 상목스님 서권일 서명선 서미원 서미현 서민자 서백열 서범원 서순진 서영주 서예희 서용원 서정애 서정표 서종석 서종석 서태자 서해인 서희석 선희갑 설연자 성지는 손경이 손가주 손영화 손보경 손현희 송문숙 송수영 송승훈 송애랑 송외숙 송요신 송은숙 송은주 송일민 신경우 신경혜 신동현 신명희 신문창 신상숙 신상호 신선에 신유미 신윤진 신은재 신은주 신자향 신정혜 신현주 신혜성 심난숙 심민지 심소영 심수희 심진실 심창교 심현실 심혜련 심혜진 안규연 안민 안연하 안채훈 안주리 안창혜 안철민 안초롱 안홍혜 안홍희 안홍희 양미초 양민희 양수안나 양애경 양영희 양은주 양창수 양현경 양현구 양효준 아다 엄경출 엄인숙 엄명숙 엄연심 엄명덕 오경희 오광수 오다현 오미근 오세희 오승환 오숙희 오승이 오정진 오정희 오현숙 오현주 오형동 오혜란 옥민영 옥창의 우안녕 우인 우춘희 원민정 원민혜 원성혜 원순경 원형실 원혜숙 유경희 유계옥 유상열 유선옥 유선원 유애리 유연희 유은주 유인숙 유재영 유한내 유해숙 유현광 유현숙 유현정 유은숙 유소정 유소희 유은주 유숙경 유승희 윤애리 윤양현 윤연숙 윤영란 윤영숙 윤영희 윤영미 윤자영 윤정희 윤지원 윤지희 이경로 이경미 이경숙 이경아 이경아 이경자 이고은 이규연 이규화 이금란 이금정 이기찬 이김영란 이나래 이나영 이나혜 이동현 이명희 이문주 이문주 이미자 이미정 이민서 이민영 이민철 이병주 이삼혜 이상근 이상미 이상연 이상은 이새롬 이서영 이서지 이선규 이선영 이성대 이성수 이상실 이세원 이소림 이소영 이수안 이수용 이순옥 이은희 이숙진 이신정 이애란 이어진 이연실 이영기 이영미 이영아 이영주 이영택 이예지 이용창 이원홍 이유휘 이윤성 이윤선 이윤선 이윤성 이윤희 이은 이은상 이은신 이은애 이은영 이은정 이은지 이은화 이재선 이재은 이재은 이재민 이정복 이정순 이정아 이정은 이정화 이정희 이준희 이지선 이지영 이지는 이지희 이진숙 이진아 이진영 이찬희 이창원 이창윤 이창주 이쾌희 이향심 이현숙 이혜숙 이효균 이효중 이호진 이홍연 이효섭 이희경 이희희 임복선 임성민 임수연 임승환 임자영 임주희 임차선 임치은 임홍실 임희은 김다혜 정미정 정민정 정순애 정영애 정영희 정윤정 정은미 정은옥 정익수 정중순 정진 정철우 정하정 정현정 정효정 전병미 전이람 전연애 전영애 전유경 전주경 전지현 전해정 전호원 정경아 정경애 정교희 정국동 정금나 정나란 정다희 정대성 정덕기 정명중 정문영 정민이 정복련 정소린 정숙경 정순옥 정순희 정여진 정영석 정영선 정옥분 정옥실 정유석 정윤주 정은숙 정은영 정정희 정지영 정지원 정지현 정창희 정혜랑 정현희 정혜윤 조 은 조계삼 조규선 조민우 조상희 조서연 조선주 조세영 조소연 조양복 조영선 조은숙 조은영 조은희 조은정 조은희 조인석 조인실 조인옥 조재옥 조정은 조중신 조지혜 조현미 조현아 조혜영 주명희 주혜진 지승경 지인순 진석중 진태란 차성안 차현영 채우리 채하승연 채현숙 채희영 최광림 최광희 최기홍 최동석 최명숙 최석우 최선규 최성옥 최성희 최수연 최수민 최순미 최아름 최연순 최옥득 최유진 최윤주 최윤정 최은영 최정림 최정은 최정민 최희정 최지나 최지너 최지영 최진아 최현우 추정희 추주형 카라 탁옥희 하나 하나는 하다영 하수는 하은주 하중석 하주선 하진옥 한국아미자키미자 한기모 한문현 한미희 한병규 한보경 한수현 한승희 한양희 한영규 한영은 한영채 한윤자 한운정 한재철 한희숙 한희정 허경현 허남주 허라금 허순만 허은주 허준석 허혜경 홍민희 홍민철 홍보연 홍성미 홍윤기 홍은정 홍재진 홍진경 황상희 황성기 황수철 황숙희 황순경 황정진 황지성 황지영 황지윤 SUNS 네이버 해피빈과 싸이월드타운의 기부자 여러분



## 평생(후원)회원님을 소개합니다. 상담소를 아끼는 마음 감사합니다. ^ - ^

강대열 강정자 강지원 강진중 고정남 권미정 권윤진 권익승 권진구 권형구 김경현 김덕현 김명희 김명희 김미주 김삼화 김선영 김선영 김옥란 김재련 김정희 김준길 김진영 김혜정 김화영 김효선 김희숙 노주희 Nicola Jones Lena Levit 명진숙 문경란 민남기 박기원 박윤숙 박윤순 박지만 배 경 배삼희 배정철 변대규 변혜정 손운석 시연숙 신동원 신혜정 안백린 안형정 아기사노부 우기호 유호상 이경환 이경훈 이기철 이덕화 이동림 이명선 이명숙 이미경 이병규 이병우 이상구 이이나 이영숙 이영애 이영희 이유미 이유미 이유휘 이정숙 이혜경 이혜사랑 이희영 이효숙 임미희 임순영 장윤경 장필화 전성혜 정경자 정동범 정몽훈 정나나 정영택 정재정 정진옥 정희재 조선혜 조성현 조영철 조일래 조혜옥 주관수 채영수 천수빈 천정환 천달리신부인과 최보원 최영애 최정순 한국텔레콤 허정 홍성규 홍순기 홍승아 무기명기부